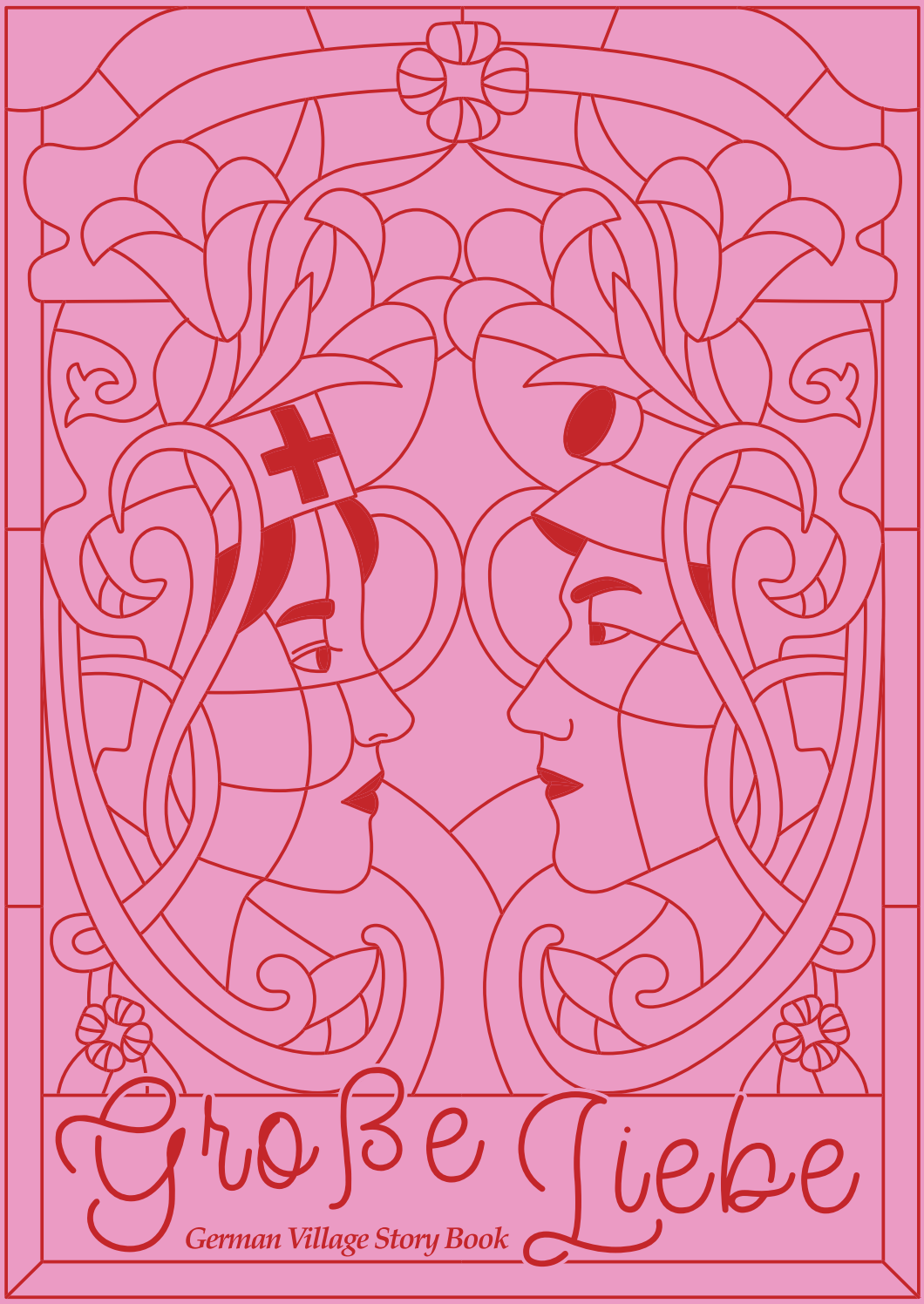

Große Liebe
German Village Story Book

Große Liebe

German Village Story Tour

Große Liebe and the Journey to Find
the Shining Youth, the Sparkling Jewels.

Große Liebe

German Village
Story Book



08 prologue.
위대한 사랑

20 독일, 그리고 독일마을에서
- 윤명희 간호사와 하봉학 광부의 이야기

52 우리의 공중정원
- 이정희 간호사의 이야기

90 푸른 하늘 아래 캄캄한 광산에서
- 이병종 광부의 이야기

116 아름다운 나의 천국
- 권광순 간호사의 이야기

152 도착, 새로운 출발
- 양경희 간호사의 이야기

188 나를 따르라
- 석숙자 간호사의 이야기

232 초속 5cm
- 류길자 간호사의 이야기

272 영원이라는 이름의 약속
- 서원숙 간호사와 신병윤 광부의 이야기

302 epilogue.
그리고 찬란했던 청춘,
반짝이던 보석을 찾아서

prologue.
프롤로그.

위대한 사랑
Große Liebe

위대한 사랑
에 대하여

캄캄한 광산 속에서, 힘든 병원 속에서,
그리고 역경의 시절 낯선 땅에서,
파독 근로자들은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광부와 간호사의 러브스토리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한 사랑과 결혼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가족과 국가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이제서야 독일마을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을 돌보는 삶에 대한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의미합니다.
광부와 간호사의 만남은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과 희망을 찾게 해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힘과
그 사랑이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위대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사랑의 힘을 상징합니다.



위대한 사랑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만, 모두가 못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민족상잔의 고통까지 이겨낸 우리 민족이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기회의 땅 독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도 모르고 독일어 한마디 할 줄 몰랐지만, 낯선 곳에서의 생활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독일로 떠나 그곳에서 광부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이었지만 자신이 땀 흘리는 만큼 더욱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견뎌 냈습니다. 그렇게 독일로 떠나 자신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광부와 간호사들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동시에 독일 사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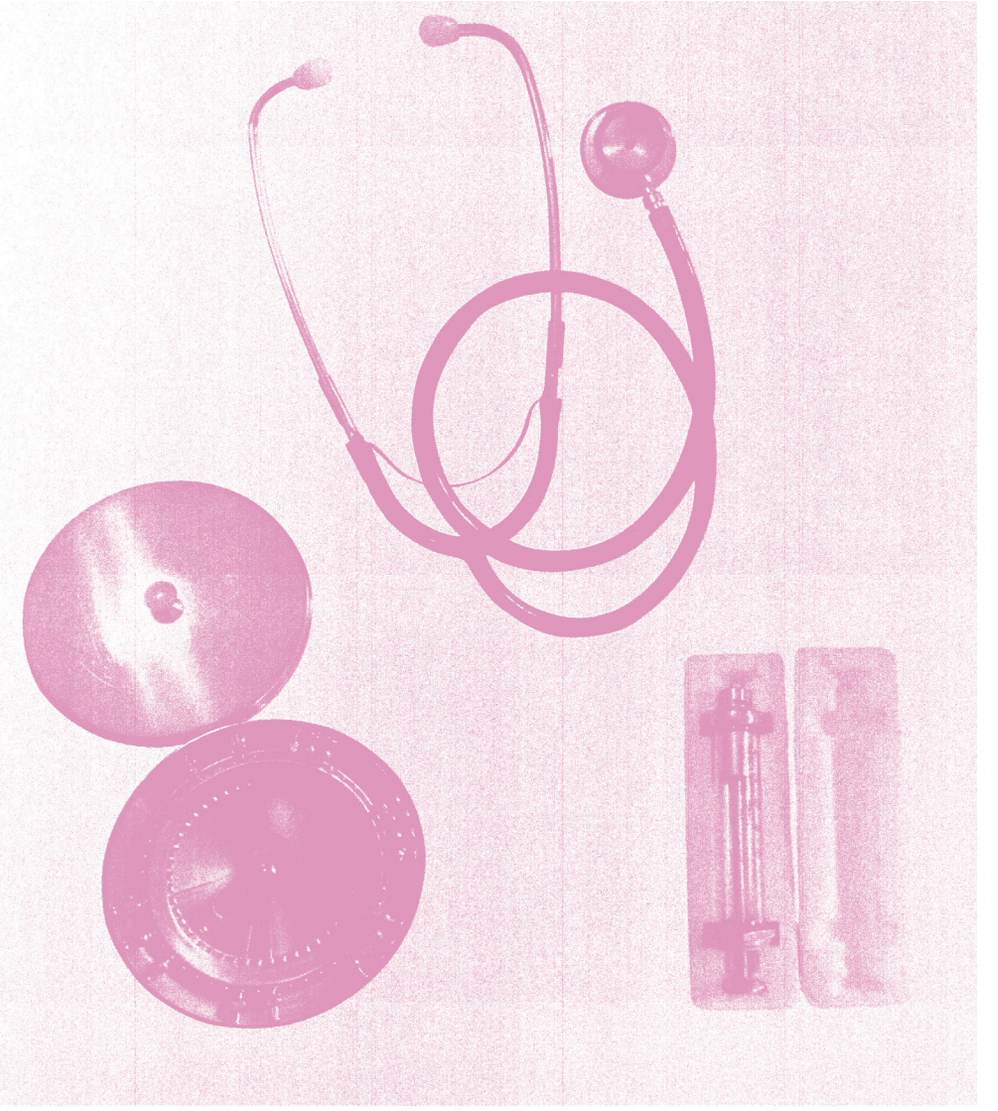
그들이 낯선 땅에서 겪었던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했었던 이야기들이고, 그렇기에 개인의 고난과 극복이 아닌 우리 민족의 고난과 극복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땀이 모여 우리 민족이 흘러갈 수 있는 큰 물줄기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물줄기들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Große Liebe

이 책에는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해준 감사한 분들,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고작 몇 페이지의 글로써 모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독일로 떠나게 되었는지, 그곳에서는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교훈을 줄 것이고,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모님 세대 역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못지않게 다양한 좌절들을 경험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용기와 위로를 건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통해 다양한 관광 상품과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관광 상품 및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보고 배우고 싶은 경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끈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이며, 후대에 전하고 싶은 그분들의 전언입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그 현재가 흘러가 다시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에 우리는 과거를 배우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파독 광부 및 간호사분들의 찬란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 기억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그 이야기들이,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의 찬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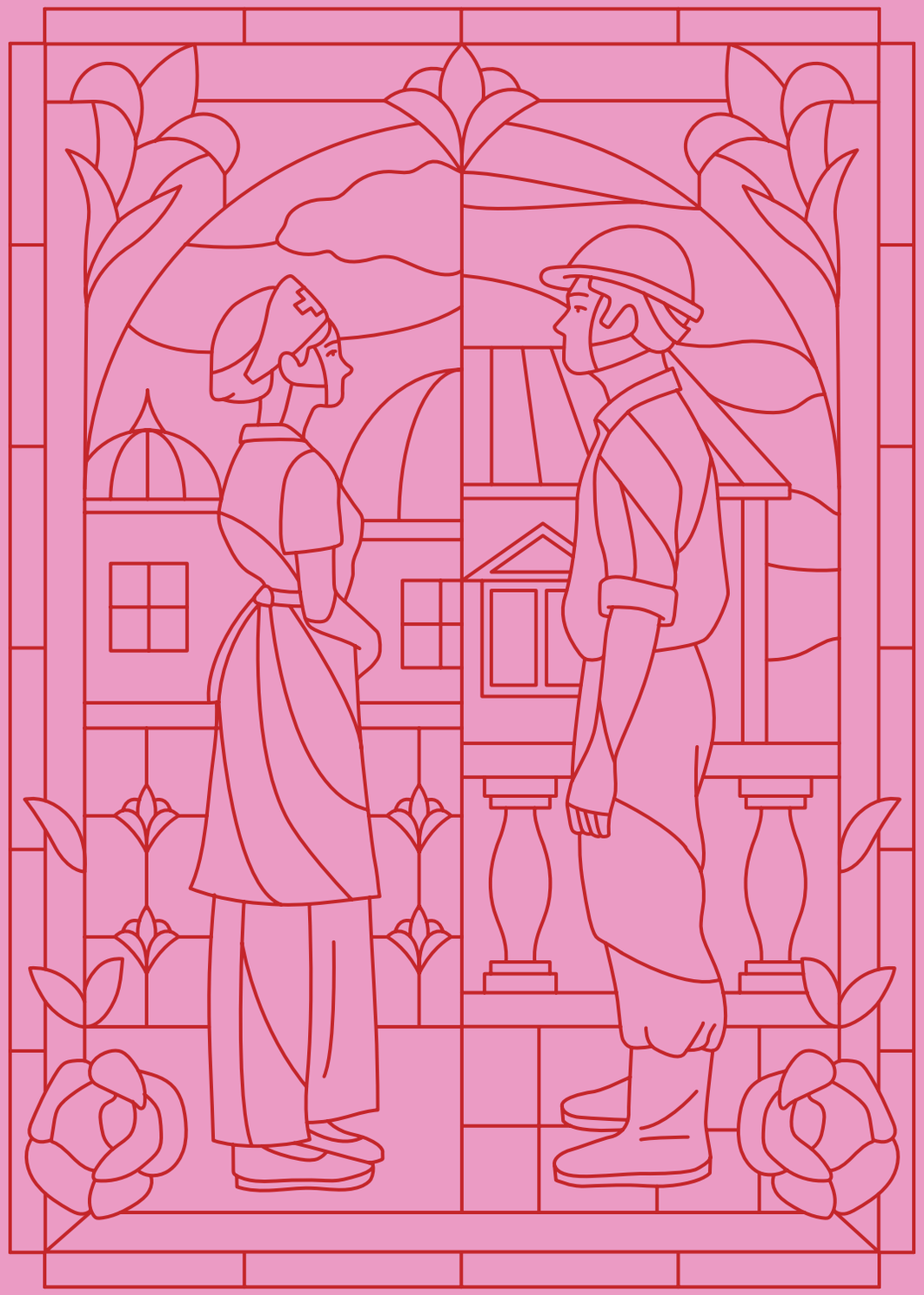
누군가에게는 다소 지루한 옛날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선인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음을 바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파독 근로자들의 이야기는 분명 지루하기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감명 깊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잔잔하게 반짝이고 앞으로도 계속 흐르고 있을 독일마을 남해바다에서 위대한 보석을 찾았습니다. 이 보석들을 여러분들에게 건내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을 대표해서,

그들의 빛나는 청춘과 위대한 사랑을 영원히 잊지 말자고 말을 건내고자,

이렇게 씁니다.


CORONADO
SSAIR
KÖLN-BON





독일,
그리고
독일마을에서

윤명희 간호사와
하봉학 광부의
이야기

각기 다른 이유의 독일로의 결심

하봉학 광부와 윤명희 간호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파독을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봉학 광부가 독일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의 생활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도시에서조차 월급이 1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심지어 시골의 사정은 이보다 더 좋지 못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에게 파독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하봉학 어린 나이에 파독을 가게 되어서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군대를 다녀온 다음 직장 생활을 잠시 했었어요. 당시에는 운수업을 잠시 했었죠. 그 당시 한국의 월급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웠어요. 월급이 1만 원 정도였는데 그 기준도 도시였지, 시골의 생활은 더욱 힘들었어요. 생활고로 인해서 독일에 가게 됐죠.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와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어요.

윤명희 간호사는 당시 사회적 관습과는 달리 일찍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큰 유행이었는데 그녀는 그 일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을 피하기 위해 독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독일행은 도피처였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윤명희 예전에는 여자가 직장생활을 일찍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잠시 하다가 집에서 아이들 과외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애들 가르치는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라는 부모님의 성화를 못 이겨서 독일로 도망가다시피 갔었죠.





그가 당시 살던 곳은 강원도 태백에 큰 광산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강원도 노동청을 통해 파독 광부 인원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는 곧장 파독 광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봉학 강원도 노동청에서 인원을 모집했어요. 그때 사는 곳이 강원도 태백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강원도에 큰 광산이 있어서 모집한 것 같아요.

파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독일행을 택한 그와 달리 그녀는 무작정 독일로 유학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협정 비자를 받으며 살길을 모색하다 이미 먼저 독일에서 파독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언니를 보고 독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명희 저는 파독 이야기를 듣고 간 게 아니라, 무작정 유학부터 하러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협정 비자를 받아서 살길을 찾게 되면서 간호 공부도 하고, 간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언니가 먼저 독일에서 간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보다 대우도 더 좋았고 모든 게 편한 것 같아서 독일로 가게 되었죠.

지원자가 매우 많았던 당시, 파독 광부 선발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여러 시험이 있었지만, 그는 그중에서도 60kg짜리 모래 가마니를 들고 운동장을 도는 테스트인 신체검사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몸무게 조건이었습니다.

하봉학 지원자가 매우 많았다고 들었어요. 경쟁률이 심했죠. 여러 시험 중에 신체검사가 가장 힘들었어요. 60kg짜리 모래 가마니를 들고 운동장을 돌아야 했는데 사실 그런 건 몹시 어렵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몸무게가 58kg 이상 되어야 통과했는데, 몇 번이나 다시 재고, 다시 재서 간당간당하게 통과했어요. 초창기에는 학력도 중요하게 봤었는데 뒤에 갔던 사람은 학력은 크게 보지 않았어요."

미지의 세계, 독일로

한국에서 몇 개월 동안 언어 교육과 독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했지만, 여전히 그에게 독일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후, 그는 3개월 동안 외부와 단절한 채 언어 교육을 받으며, 땅속에서 들어가 일하는 기술만 익혔습니다. 익숙한 땅을 떠나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봉학 독일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가기 전에 몇 개월 동안 한국개발공사에서 언어 교육도 받고 독일 사전 정보를 공부하고 갔는데, 독일에 도착해서도 3개월 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 언어교육 받고, 땅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교육만 받았어요

그녀는 독일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언니가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독일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언니의 경험은 그녀에게 독일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었고, 그곳에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에 대한 낯선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곳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윤명희 저는 언니가 이미 독일에서 간호 일을 하고 있어서 독일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이 흘러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처음 도착했던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단편적인 장면들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고, 평탄한 땅과 넓은 들판이 펼쳐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길가의 간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경험이 그에겐 모두 신기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봉학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리니 차가 우리를 데리러 왔고,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휴게소 들린 기억만 나요. 생각보다 독일이 높은 건물이 없고, 땅이 넓고, 들판이 넓고 산은 없어요. 길에서 간이 식당 같은 곳에서 음식을 먹게 했는데, 그 경험이 조금 신기했어요.

그녀가 처음 마주한 독일의 풍경은 눈 내리는 겨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눈이 독일에 쌓여있었고, 눈의 상쾌한 냄새가 그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의 모든 경험이 그녀에게 설렘과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윤명희 저는 겨울에 독일을 처음 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또 한국에서는 쌓여있는 눈이 잘 없었는데 눈이 쌓여 있었고, 눈 냄새가 너무 좋았고 신기했어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이랑 집이 가까웠는데 집 오는 동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가 파독을 결심했을 때, 집안에서는 반대보다는 응원이 더 컸습니다. 당시 파독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 절반 정도는 신청해도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그가 독일로 가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덜어내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독일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봉학 파독 경쟁이 심해서 오히려 반대보다는 집안에서는 좋아했어요. 절반 정도는 신청해도 떨어졌으니까요

윤명희 공항에서 가족들이 울기도 했지만 반대는
크게 없었어요. 택시 타고 김포공항까지 금방이더라고요. 부모님이
목이 메이셔서 말은 못 하시고 손만 흔들어주셨어요. 꿈을 가지고
독일에 가기 때문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픈 건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독일에서의 삶

그 시절,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던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윤명희 간호사는 광부와는 다르게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동료들도 저희보고 참 부지런하고 착하다고 하고, 우리가 작아서 그런지 작은 천사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에게도 독일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익숙한 한국 음식과는 전혀 다른 독일 음식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 식품점을 찾아 직접 요리해 먹으며 고향의 맛을 느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독일 음식에 매료되었고 처음에는 낯설었던 음식들이 이제는 좋아지고 심지어 그리워지기까지 합니다.

하봉학 처음에는 음식 때문에 힘들었어요. 한국음식이랑 180도 달랐어요. 그렇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직접 해 먹으면서부터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동료들이랑 한국 식품점에서 장을 봐와서 만들어 먹으면서부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깐 독일 음식이 좋아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소시지랑 슈니첼이 그렇게 좋았어요

한국음식과 너무 다른 독일 음식에 적응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남편과 달리, 그녀는 처음부터 독일음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독일 생활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천상 독일 체질'인 것을 느꼈습니다.

윤명희 전 힘든 걸 잘 몰랐어요. 너무 좋아서 간 거라 더 좋았어요. 그리고 전 한국음식도 거의 안 먹었어요. 독일 음식이 좋았어요. 빵보다는 감자가 주식인데, 감자를 많이 먹었어요.

이 부부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독일 생활을 경험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고된 노동을 겪었기에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뿌듯한 순간을 찾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매일매일을 버텨낸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하봉학 사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생각할 틈도 없어서 뿌듯한 기억은 크게 들질 않네요. 한국에서는 동업제라고 하는데,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한 만큼 받기 때문에 덩치가 큰 독일 사람들이 일하는 양을 따라가질 못해서 일은 힘든데 돈을 많이 못 벌 때도 많았어요

한편, 그녀는 간호사로서 독일 환자들에게 '작은 천사'라 불리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환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환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진심은 언어를 초월해 통한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윤명희 환자들이 작은 천사만 찾을 때는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 말을 못 해서 저희는 더 친절하게 환자들을 대하게 됐고, 그래서 환자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부는 독일에서 생활하며 몸소 느낀 독일의 최대 장점을 사회 보장제도, 친절함, 그리고 검소함으로 꼽았습니다. 독일의 사회 보장제도는 초등교육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병원 치료비도 보험으로 처리하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도움에 기꺼이 응하는 독일인의 친절함에 매번 감동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허례허식 없는 독일인들의 검소한 삶의 태도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독일인들의 철학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봉학 독일은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되어있어요. 지금은 한국도 좋아졌지만, 당시 한국은 말도 못 할 수준이었죠. 독일은 초등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전부 무상교육이고, 아파서 병원을 가도 돈 하나도 안 쓰고 보험료에서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통법규 차이가 커요. 한국은 사고가 나면 몇 퍼센트로 책임이 있지만 독일은 작은 잘못을 해도 큰 책임이 따라요.

윤명희 독일 사람들은 일단 너무 친절하고, 부탁을 하면 정말 잘 도와줘요. 그리고 정말 검소해요. 오래된 옷 입는 것이 자랑이에요. 집도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서 오래 살아요.

독일에서의 삶을 이어가던 중, 이들은 광주 민주화운동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멀리 떨어진 독일까지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독일에 있었지만, 먼 타국에서 고국의 비극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동시에 공포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이 통제되었던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그 비극적인 현실이 오히려 생생하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하봉학 독일에 있는 한국 사람 중의 한 명이 자기 동생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으로도 많이 알려졌죠.

윤명희 뉴스에 보면 죽이는 장면도 많이 나와서 전두환이 살인자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독일에 있는 저희도 정말 끔찍하고 두려웠어요.

이 부부의 만남은 같은 도시에서 근무하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먼저 독일에 와있던 그녀의 언니들과의 인연으로 그녀를 알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한 소개나 사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만남 이후에 그로부터 청혼을 받았다고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갑작스럽고도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봉학 같은 도시에서 근무했어요. 언니들이 먼저와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되었죠.

윤명희 형부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기보다 그냥 청혼을 받았죠. 하하하 사귀지도 않고 몇 번 보자마자 바로 청혼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다

이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데에는 독일마을의 조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위한 마을을 만든다는 계획을 듣고 노년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귀국을 결정합니다. 한편, 그녀는 도시 생활과 독일을 매우 좋아했기에 남편에게 혼자 가라고 할 정도로 망설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와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하봉학 독일마을 때문에 다시 온 거죠. 그리고 이 집이 너무 좋아서 왔죠. 당시 남해군수가 파독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 독일의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도 맺었어요. 그래서 독일마을 만들어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위한 마을 만든다고 해서 노년을 보내려고 왔죠.

윤명희 집 때문에 온 게 맞지만, 사실 저는 도시와 독일이 좋아서 남편 혼자 가라고 했어요.

부부가 처음 독일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곳은 길도 없고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과연 이곳에 마을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가장 큰 집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설계 당시에도 가장 큰집으로 계획되었고, 높은 위치 덕분에 경관이 정말 좋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한 환경과 에너지를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는데, 이미 그 투자에 대한 본전은 뽑은 것 같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봉학 처음엔 길도 없고, 형편없었어요. 여기에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이 가장 위에 있고 크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처음 설계할 때 가장 큰 집이었고. 높은 곳에 있어서 경관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환경을 생각해서 태양광 발전기도 설치해서 이미 본전은 뽑은 것 같아요.

독일마을에서 열린 첫 맥주 축제는 이들 부부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이 축제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 준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윤명희 처음 맥주 축제를 할 때가 기억에 남네요. 독일에서 지낼 때 맥주 축제를 가봐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설렘과 함께 무엇을 준비해서 팔까? 생각을 하다 최초로 독일마을에 독일 소시지를 들였죠. 그때 너무 고생했지만, 축제는 성공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는데. 그때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하봉학 소시지가 모자라서 집에 있는 것까지 내다 팔았죠. 나누어 먹고 할 시간도 없이 너무 힘들게 일했던 그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독일에서 배운 검소한 삶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오래된 옷을 입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독일의 문화와 달리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속상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 잘 굴러가는 차를 바꾸라고 할 때마다 그는 의아함을 느낍니다. 이들 부부는 독일에서 배운 검소한 생활방식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이 한국 사회에도 스며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윤명희 검소한 삶을 배워 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오래된 옷을 입는 게 자랑이라고 하면, 거지라고 해요. 정말 스트레스받아요.

하봉학 외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차를 바꾸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직 잘 굴러가는데 왜 바꾸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과 땅을 정부에서 준거라고,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집도 사고 땅도 사서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부는 독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지만 때론 다른 추억과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봉학 저는 크게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집이 좋아요.

윤명희 사실 여기가 너무 촌이라서 되게 답답할 때는 독일의 큰 도시가 생각나요. 전 사실 시골에 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부부는 독일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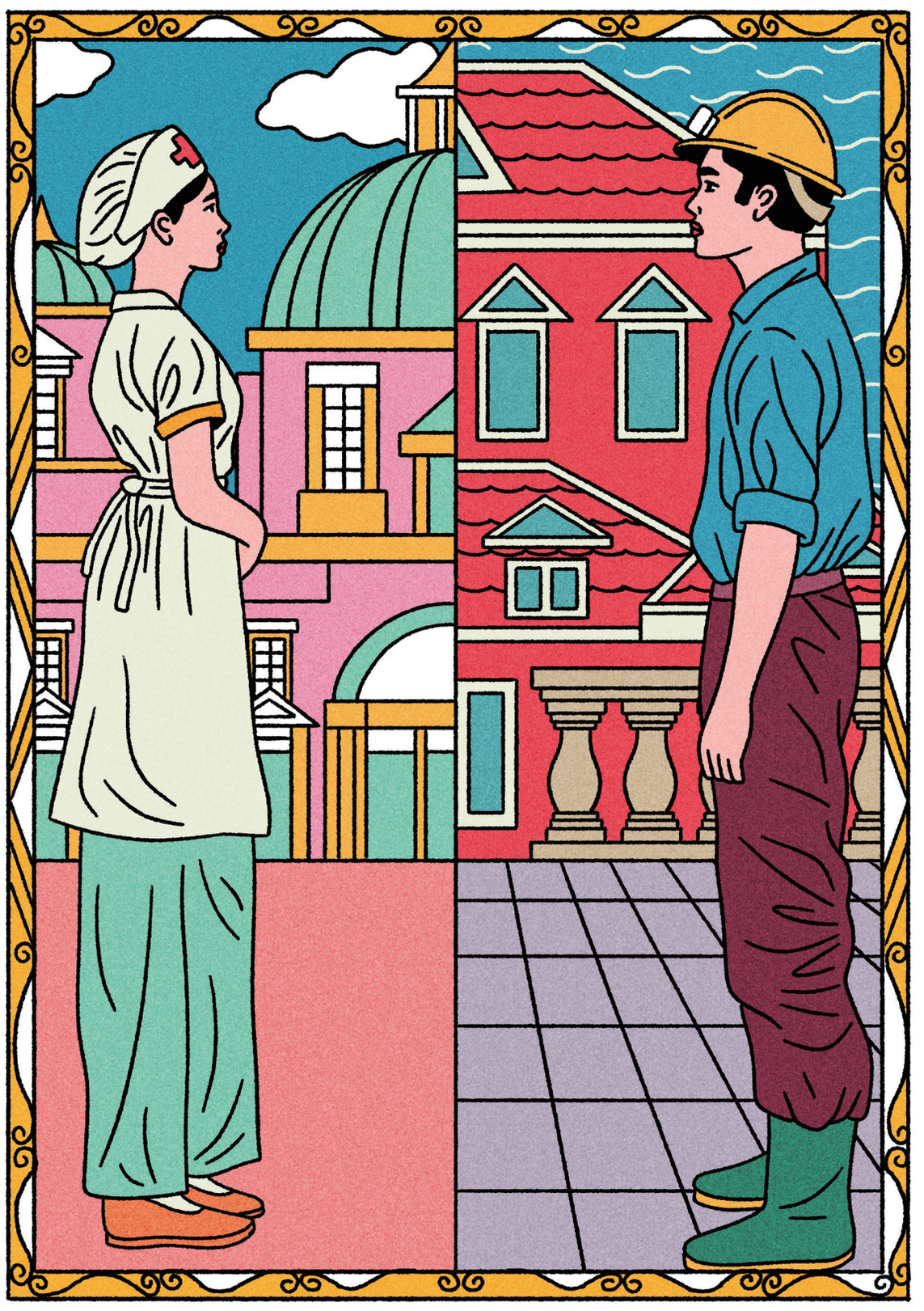
그는 독일에서의 절약하고 검소한 삶을 배운 것이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업에 실패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근면과 성실함을 몸소 체득하게 된 경험이 그에게는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활동을 대부분 독일에서 했기에, 자신의 인생이 독일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느낍니다.

하봉학 절약하고 검소한 삶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죠. 사업을 해서 망할 때도 있고 힘들었는데, 근면 · 성실 이 한 가지에 대해선 정말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경제생활을 독일에서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서 제 인생이 다 독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녀는 독일에서의 시간이 '청춘' 그 자체였다고 회상합니다.

윤명희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청춘을 거기서 다 보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는 이제는 굳이 독일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현재의 한국과 독일은 모두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무조건 독일로 가야 한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그녀 또한 외국에 대한 호기심이 남아 있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다시 독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명희 저는 갈 거예요. 외국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또 갈 거 같아요.

하봉학 나는 안 갈 거예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 일을 찾고, 지금은 한국이나 독일이나 다 잘사는데 굳이 독일에 갈 필요가 없지.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가야죠(웃음).

다른 듯 서로 닮아있는 하봉학 · 윤명희 부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 택했을까요?

하봉학 여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조건 다시 하지.

윤명희 그 당시 생각이면 받아주지만, 지금이라면 안 받아주지. 지금 생각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안 받아주지 하하하.

이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오랫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한 진한 나이테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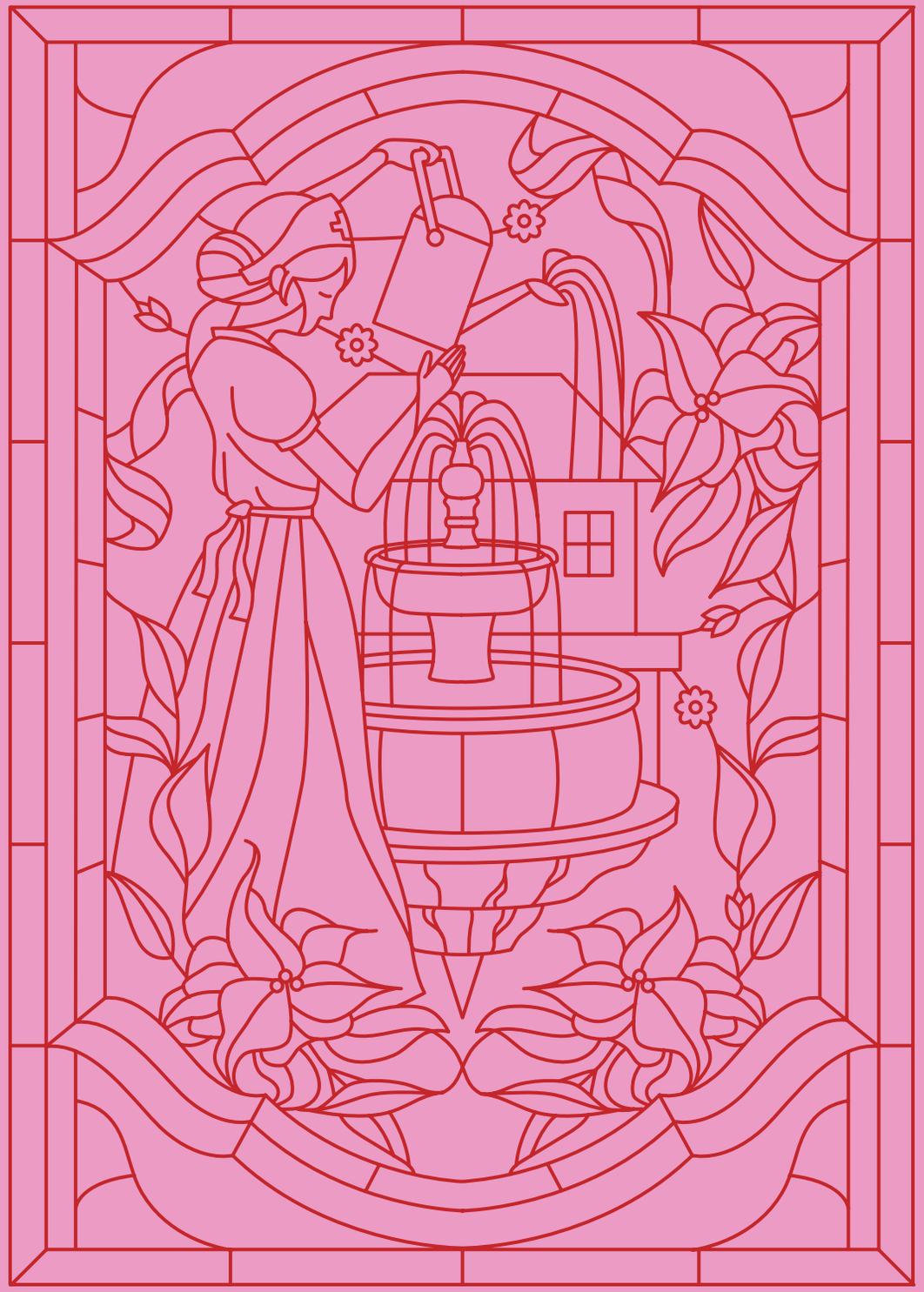
윤명희와 하봉학에게 독일마을이란?

서로의 차이 속에서도 서로의 닮은 점을 찾아내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하봉학, 윤명희 부부,
이들에게 독일마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봉학 하봉학에게 독일마을은 마음의 안식처다.

윤명희 윤명희에게 독일마을은 인생의 정리다.





우리의 공중정원

이정희 간호사의 이야기

희망의 멜로디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대부분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이정희 간호사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하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녀에게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뒷집에 사는 언니가 파독 간호사로 외화를 벌어 가정에 큰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파독이라는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낯선 외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계에 대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과 더 큰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녀는 독일로 떠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정희 제가 55년생이에요. 그때 사실 가난하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다 가난했던 시절이죠. 전쟁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곳곳이 폐허였어요. 다들 어려웠죠. 독일로 가기 전에는 가정이 조금 어려운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 저희 뒷집에 사는 언니가 간호사로 독일에 가서 외화를 벌어들여서 경제에도, 가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독일에 간호사로 가서 일을 하고 한국에 돈을 불이면 부모님이 생활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서 기회가 되면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고요. 그래서 독일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많긴 했어요. 외국에 가서 말도 못 하는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녀는 1975년 2월,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간호사 인력이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거의 없었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독일로 떠날 수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이정희 저는 막바지에 가서 그런지 어렵진 않았어요. 당시에는 해외개발공사라는 데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간호사 모집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력이 한 6개월 이상 있어야 됐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신청을 해서 3개월 동안 독일어 교육을 받고 바로 독일에 갔습니다. 저는 거의 마지막 차인 75년도 2월에 갔는데 그때 독일에서는 간호사들이 워낙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쟁률은 없었어요.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 말고는 다들 가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머나먼 나라 독일이었지만, 그녀가 아주 독일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녀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며 유럽의 환상적인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유럽에 대한 동경이 커지며, 언젠가 저런 나라에 가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정희 저는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근면, 검소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부흥이 됐다는 이야기. 독일제 제품은 아주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또 중학교 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너무너무 자연환경도 아름답고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런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 했는데 진짜 기회가 돼서 간호사로 독일로 가게 된 거죠. 가서 예쁜 거, 좋은 거 정말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녀의 파독 결심을 꿈에도 생각 못 한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에 부모님은 딸의 결정을 미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모는 어린 나이에 먼 타국으로 떠나는 그녀를 가장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정희 저희 부모님은 꿈에도 생각 안 하셨죠. 저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갑자기 파독을 결정하니까.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정 경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독일에 가면 그래도 또 많이 벌어오는 게 분명하니까요. 사실 저를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분은 저희 이모님이시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할 나이인데 독일까지 가서 돈을 벌 생각을 했다고, 다시 만난 저를 안고 우셨어요.

그 당시 그녀는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떠나기 위해 서울로 가는 길, 먼 타국으로 떠나보낼 딸이 걱정되어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 또한 슬프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정희 그 당시 저는 대전에 살았어요. 출발은 서울에서 했죠. 그래서 대전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울로 데려다주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서울 도착할 때까지 우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두렵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잡았어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대전에서 서울 가는 것도 두려웠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독일에 가게 된 거라 그동안에 한국 간호사들의 소식을 접하니 또 '뭐 그렇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을 잡았어요.


THE SOUND OF MUSIC

독일에서의 적응기

화려한 모습의 독일을 상상했던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가 처음 마주한 수도 베를린은 의외로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정희 독일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제가 가야 할 병원은 공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오래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컴컴하더군요. 사실 그렇게 큰 고층 건물도 별로 없었고 그냥 집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좋고 거리는 조용하고 정리가 잘 된 도시구나 했지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베를린은 수도니까 삐까뻔쩍, 우리말로 하면 화려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조용한 분위기더라고요.

독일에서의 초기 생활은 낯설고도 바빴습니다. 그녀는 오전에는 병원에서 4시간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어진 언어 연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새로운 언어와 문화는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한 3개월 동안 독일어 언어 연수를 했어요. 오전에 4시간 근무하고 오후에는 괴테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참 어려웠죠. 한국말도 어려운데 독일말은 더 어려웠어요. 특히 뭘 설명한다든지, 환자들이 자신들의 불편함을 얘기하실 때 소통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일적으로 항상 반복되는 언어들이 익숙해져서, 조금 견딜 만했어요.

독일을 찾은 많은 일본인 유학생 때문이었을까요? 그녀가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 많은 독일인들은 그녀를 일본인으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 간호사들이 점점 많아지자, 독일 사람들은 아시아인을 보면 "한국 간호사인가요?"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근무했던 시립병원에는 무려 50명의 한국 간호사가 있었고, 18개 병동마다 한두 명의 한국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저희보고 일본 사람이라고 많이 물었어요. 그 당시에 독일에 일본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일본 사람이냐고 그렇게 묻곤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많아지니까 아시아인을 보면 '아, 한국 간호사?' 이렇게 바뀌긴 하더라고요. 제가 시립병원에 갔을 때는 18개 병동이 있었는데 한국 분이 한두 명 정도 근무하셨고 전체 한국 간호사는 무려 50명이나 있으셨어요.

당시 한국에서는 빵, 햄, 치즈, 잼 같은 음식이 대중화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접하기 어려운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독일 음식을 먹는 것이 다소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정희 음식은 좀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외식을 많이 해서 빵, 햄, 치즈, 잼이 대중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은 부자 아니면 접하기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독일에 가서 빵을 주로 먹어야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는 한국 음식을 해 먹기 시작했죠(웃음). 이후에는 김치도 조금 담아 먹고, 또 쌀 같은 것은 파니까 밥도 또 해서 먹고 그랬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한국 식품점이 생기더라고요.

김치를 자주 먹는 한국인에게 김치를 못 먹는 일은 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독일에 갔을 때는 독일 상점이나 식품점에서 배추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 상점에 배추, 무 등 다양한 야채들을 팔기 시작했고, 고추장, 고춧가루 등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독일에서도 그리운 한국 음식을 쉽게 접하고 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가서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했고,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한인들이 초대해서 많이 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한국 음식 많이 차려놓고 같이 교재도 나누고 하니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독일 식품점에는 배추를 찾기 힘들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 오일장 같은 곳에서 터키 사람들이 배추와 무를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후에는 한국 분들이 배추, 무 농사를 지어서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 식품점에서 고춧가루를 사서 김치를 해 먹었죠. 게다가 거기는 고기도 많으니까 족발 같은 거, 특히 사골 끓여 먹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싸더라고요(웃음).

독일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간호사가 필요했을까요? 그녀는 그 이유를 보호자가 없는 병동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독일에서는 병동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정희 제 생각에는 보호자가 없는 병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호자들이 아니면 가족이 가서 환자를 돌봤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보호자가 없는 병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예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병원비도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선 보호자가 없는 병동을 운영하니까 아마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독일은 보험이 다 잘 되어있거든요. 보험이 잘 되는 이유는 세금을 또 그만큼 많이 내니까 그런 복지가 가능했겠죠(웃음).

당시 독일과 한국의 화폐 차이는 대략 7-10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 돈의 대부분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파독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국가를 위해 으레 행동했던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신과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이정희 처음에는 거의 다 송금 했죠. 부모님들한테요. 그 당시 송금한 돈으로 동생들 공부시키고 한 거죠. 그 외화로 또 국가에도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가서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저도 파독 근로자지만, 같은 파독 근로자분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죠(웃음).



독일에서 피어난 사랑과 꿈

그녀가 근무했던 병동에는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간호사들이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벨이 울리면 즉시 달려가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독일 수간호사조차도 "조금만 쉬어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환자들은 그들을 '한국에서 온 천사들'이라 부르며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녀에게 큰 자부심과 보람을 안겨주었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정말 감사했던 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언어는 어려워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해가 지날수록 연봉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것도 하나 빠짐없이 다달이 급여 명세서가 나와요. 명세서를 보면, 정확히 계산해서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감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한국 간호사 싫어하는 사람도 왜 없겠어요. 인종차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너무 우호적이었어요. 제 생각엔 한국 간호사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한국 간호사가 한 서너 명 계셨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없는 병동이기 때문에 한국 간호사들이 모든 걸 다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벨이 울리면 우리가 직접 가야 됐고 환자들의 손과 발이 돼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호자들이나 간병인이 하는 것을 우리 간호사들이 다 했기 때문이죠. 벨이 울리면 독일 간호사보다 먼저 쫓아가고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수간호사가 독일 간호사들이 일하게, 너희들은 조금 가서 쉬어라 할 정도였어요. 또 환자들이 간호사들 중에서도 '당신이 최고다'하며 또 '한국에서 온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을 적에는 너무 뿌듯했어요. 덕분에 또 더 열심히 일하게 됐어요.".





그녀는 원래 3년 계약으로 독일에 갔지만, 그곳에서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독일에서 건축 공부를 하던 한국인 유학생이었고, 두 사람은 우연히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나갔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꿈은 낯선 땅에서 피어났고, 독일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원래 3년을 계약하고 갔었는데 일을 하던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독일에서 건축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그렇게 빨리 안 끝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된 거죠(웃음). 저희 남편은 독일에 공부하러 온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남편의 고향은 경남 사천인데 전쟁 끝나고 독일에서 의무 의료진들이 왔었대요. 그때 저희 시아버님이 독일의 의무병들이 준 위장약을 드시고 나으셨대요. 그러니까 독일 약이 명약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저희 남편이 초등학교 3학년쯤 독일은 대단히 좋은 나라인가 보다고 생각하고, 나도 한번 가봐야지 라고 꿈을 가졌었대요. 어느 날 경남 마산시에서 한독고등기술학교라는 학교가 생겼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면 독일로 유학도 갈 수 있다고 그랬대요. 독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저희 남편은 그 학교를 갔답니다. 그리고 마산에 큰 섬유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 독일 섬유기계와 독일 엔지니어가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거기서 통역도 하며 기술자로 있으면서 4년인가 근무하고 독일행 비행기 티켓 하나를 살 수 있었대요. 그렇게 독일에 갔답니다. 우리 남편은 74년도에 공부하러 갔고 저는 75년도에 간호사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요. 독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교회 아니면 성당 또는 한인회 모임 이런 곳에서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랠 큰 기회고 만남의 장이었던 셈이죠.


P



그녀는 남편이 한국에 돌아와 건축적 기술을 널리 퍼트리고 싶어 하는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남편의 꿈을 존중하며 함께 독일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노후를 위해 독일마을로 온 사람들과 함께 독일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독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50대였던 그녀와 남편은 힘을 내어 독일에서 자재를 수입하고,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남편이 한국에서 이런 마을에 살고 싶어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시골까지 올 필요가 있나 해서 안 왔는데 어느 날 2005년도쯤, 제가 독일 마을이 있다는데 한번 구경 가보자고 했어요. 독일 마을이 처음에는 분양이 엄청 잘 됐는데 막상 독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여기를 10년 묶어놨고 그분들이 땅을 팔려고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노후에 독일에서 온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독일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싶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마을에 방문해서 진짜 독일의 교육,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50대여서 힘이 있었죠. 그래서 자재를 수입해서 우리 가족이 거의 한 땀 한 땀 지었습니다. 사실 독일에 대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집이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했어요. 조금이나마 독일 문화를 여러 방면에서 보고 느끼고 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새빠지게 지었습니다(웃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붕, 기와. 기와는 저하고 저희 남편이 3년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와하고는 다르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나무 줄 위에 기와와 기와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하고 클립 같은 걸 연결해야 하고요. 전부 다 나사못을 박고 모서리는 각도를 재서, 기와를 잘라서, 구멍을 내야 하고요. 또 물 안 새게 한다고 저희 남편이 거기다가 구리판을 다 깔아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기와 잇는 사람이 와도 아무도 못 하니까 저하고 저희 남편이 한 3년을 이었습니다. 또 독일제 벽난로, 독일 창문, 독일 마루 같은 걸 가져와서 지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요. 이 창문도 단열은 물론이고 얼마나 방음이 잘 되는지, 1층에서 문 닫고 연주를 해도 밖에 거의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운 독일

그녀는 독일에서 돈을 벌고, 직업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던 경험이 그녀의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녀에게 행복이란 그 시절 고난을 함께 경험했던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독일마을에서의 삶이라고 전합니다.

이정희 저의 인생에 독일에서의 경험은 가장 중요한 거였죠. 제가 거기 가서 돈을 벌 수 있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근무를 하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독일에서 좋은 분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 다 그래요. '아유 사장님은 행복하시겠어요'라고요. 독일에도 다녀왔고 당시에 돈도 많이 벌어서 이런 좋은 집을 지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럴 때 제가 가끔 행복이 뭔가 싶어요. 행복이라는 건 어떤 때는 목적을 달성해서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이 행복일 수도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것, 또 좋은 부모님 만나서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결혼 잘하는 것, 애들 성공해서 잘 되는 것, 아프지 않은 것, 이런 것이 다 행복 아닐까요? 지금 저에게 행복이라는 거는 좋은 이웃과 더불어가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즘 시대 젊은이들 같으면 해외에 노동하러 가겠어요? 파독 근로자들은 서울도 아닌 독일까지 가서 자신의 부모, 형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송금했던 훌륭한 분들이기에 존경합니다.

그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반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행하는 독일의 문화를 본받아 한국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정희 유럽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구경할 수 있고, 멋진 곳도 많잖아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같은 거요. 성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독재도 아주 나쁜 건 아니다(농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돈,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한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는 빨리빨리 하고, 다음에 오면 다 부숴버리고. 그럼 어떤 문화가 남아있겠어요? 저는 무언가를 계획했으면 정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유럽처럼 멋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세계 관광객이 보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독일마을에, 관광지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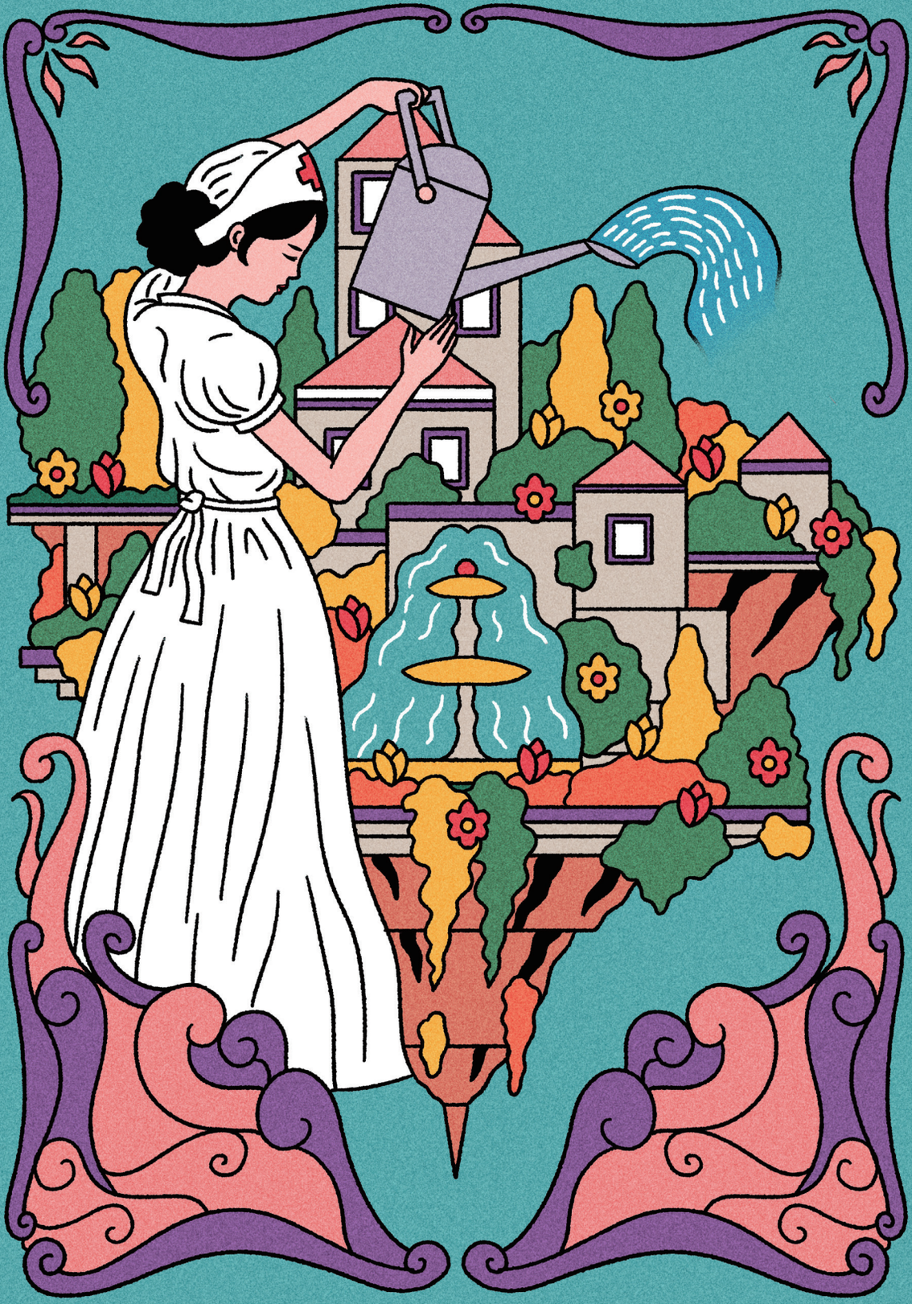
베를린 성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녀는 독일의 장점을 '신뢰'와 '근면'으로 꼽았습니다.

이정희 독일의 진짜 좋은 점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거짓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너무 실망했어요. 저희가 베를린성을 10년 운영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 어느 대사님의 방문이었어요. 그분이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독일 마을에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숙소와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사님 부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사님이 오실 때, 대사님과 운전기사 겸 통역하시는 분과 사모님 달랑 세 분이 오신 거예요. 그것부터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그분들에게 왜 독일마을에 방문하셨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독일 교포도 있고, 파독 근로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파독 근로자들이 독일에서 외화를 벌어 한국 경제 부흥도 시켰지만, 독일에 인력이 필요할 때 독일에도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와중에 되게 따뜻하시고. 그리고 수행원도 없이 소박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임무만 하러 온다. 정말 그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남해의 축복받은 날씨 속에서 살아가며, 독일 마을이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밑바탕엔 국내외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봐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강조합니다.



이정희 저희 남편은 농어촌 하수처리장 건설하러 왔다가 보니 남해가 너무 따뜻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이런 마을에 독일에서 사신 분들이 와서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내면 좋겠다 했대요. 사실 독일은 일반적인 날씨가 좀 추워요. 근데 특히 남해는 조금 따뜻해요. 지리산을 넘어오면 벌써 진주부터는 공기가 달라요. 충청도, 서울, 한 번 가보세요. 겨울에 얼마나 추워, 눈도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남해는 진짜 보물섬이라고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계절이 있지만, 겨울에는 눈도 잘 안 오거든요.

제게 바람이 있다면 독일 마을은 정말 영원히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라는 것. 노동이 없으면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맥주, 소시지는 대한민국 어디 가든지 실컷 먹지만 여기 와서 정말 왜 파독 광부, 간호사가 독일로 갔어야 했는지를 한 번 더 상기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지 않으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국에 와서 한 번쯤은 그 옛날 시절을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 학교 학생들도 다 한 번쯤은 수학여행을 와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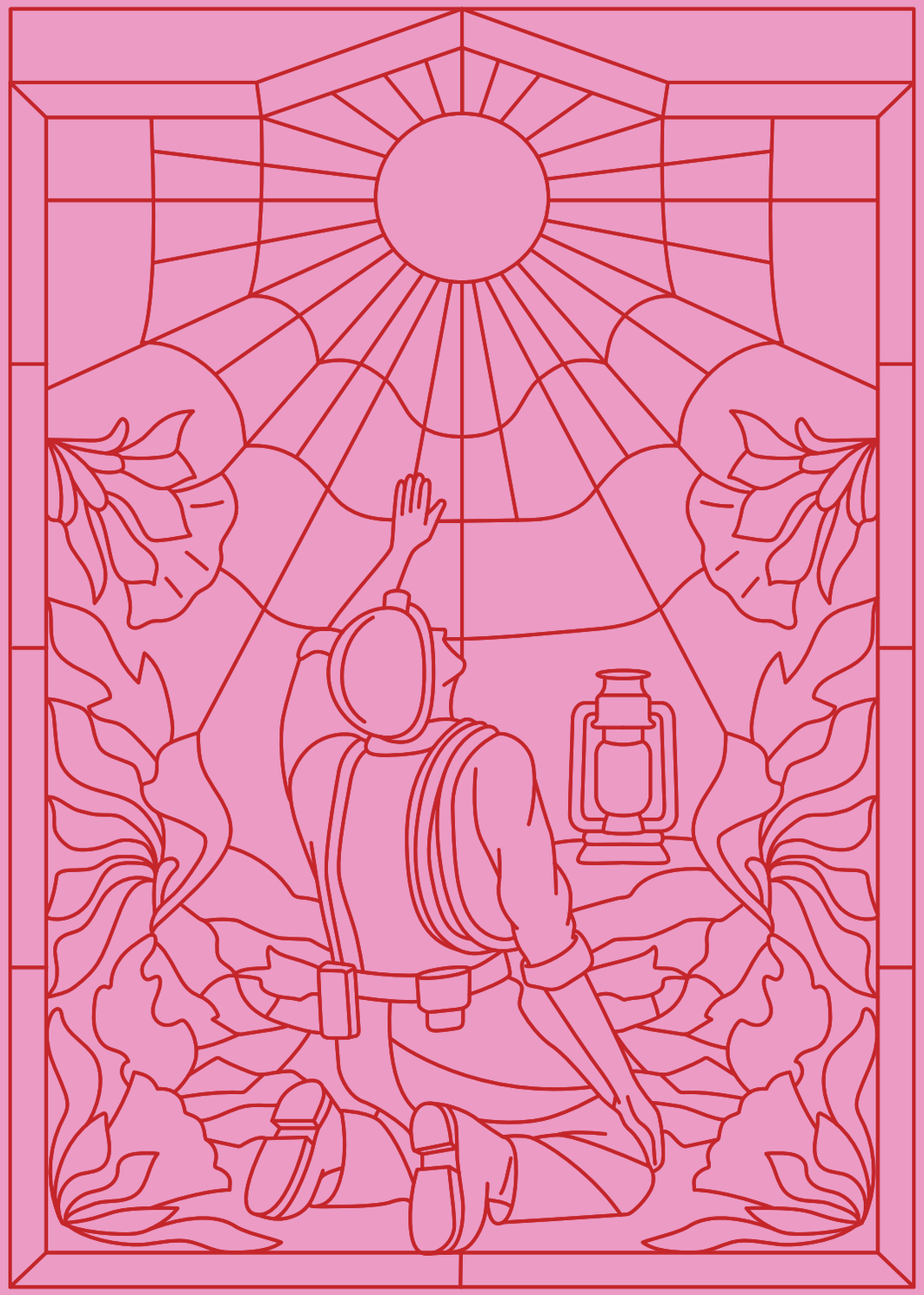


이정희에게 독일마을이란?

오늘도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쌓아 올린 베를린성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는 그녀에게, 독일마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정희 이정희에게 독일마을은 꿈을 펼친 곳이다.

이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다(웃음). 젊은 날을 모두 일로 보냈던 힘들었던 기억. 그 속에는 남편과 만나고 또 너무 아름다운 것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담겨있어서 힘들기만 했던 기억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사실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던 기억이죠. 지붕 기와를 3년 내내 잇고, 힘들게 집을 지었던 기억. 몸이 힘들어도 꽃을 심고, 정원을 관리하는 것. 그 속에는 또 너무 좋았던 남해의 바람, 햇살, 바다, 기온,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의 추억이 있었죠. 그런 것 같아요.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정말 아름답고 값진 것. 독일마을에서 펼쳤던 꿈, 그리고 앞으로 펼칠 꿈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푸른 하늘 아래 캄캄한 광산에서

이병종 광부의 이야기

어둠 속

빛을 찾아서

이병종 광산노동자는 1960년대 당시 한국에서는 전신전화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하기도 빠듯한 급여 탓에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할 여유조차 없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더욱이 본인 앞으로 많은 빚을 가지고 있던 그는 하루하루 힘든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파독 광산노동자 모집 광고를 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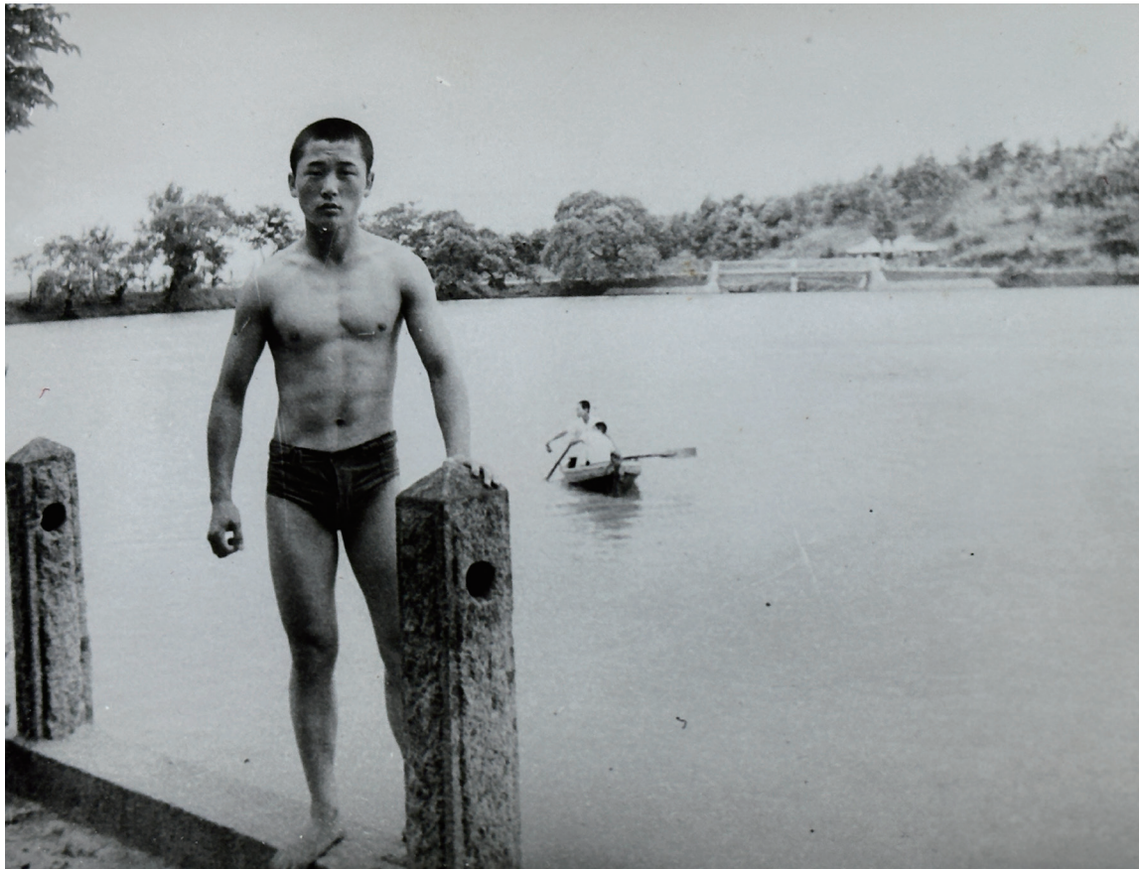
이병종 한국에서는 전신전화국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웠어요. 광주에서 3~4개월 교육을 받고 전주에서 일을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월급이 작아서 생활이 힘들었고,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다 독일 광산 근로자 모집 광고를 보고, 빚을 갚기 위해 독일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독일 광산근로자로 가면 한국 장관의 10배를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장관이 얼마나 받는지는 몰랐지만, 그 정도면 빚을 갚기에 충분할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파독 광산노동자 모집의 경쟁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160명을 뽑는데 전국 팔도에서 6,000여명의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교양 시험, 독일어 시험, 적성검사, 체력시험에 이르기까지 그는 독일행을 위해 수많은 시험대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이병종 독일로 갈 때 경쟁률이 정말 높았어요. 전체 160명을 뽑는데 6천 명이 지원했어요. 처음에 교양 시험을 봤고, 독일어도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지만 말은 잘 못했어요. 문법 시험을 잘 봐서 한 번에 붙었어요. 적성검사와 신체검사도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신체검사는 30km를 뛰게 하고, 60kg을 들어 올리는 등 매우 힘든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독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독일로 떠나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머나먼 타국으로 가족들을 떠나보낼 생각에 공항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병종 독일로 떠나던 날, 김포 비행장에서 여권을 받았어요. 여권과 저금통장을 주면서 돈을 그 통장에 입금하라고 했죠.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면 전신전화국에 가서 하루 휴가를 내야 했어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 요금이 비싸서 전화를 못 한 사람들이 많았죠. 떠나는 날 공항은 울음바다가 됐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봤던 건 아니었고, 군 복무(육군)를 할 때 많이 타봤었거든요. 큰 비행기는 아니었지만, 정찰기를 탔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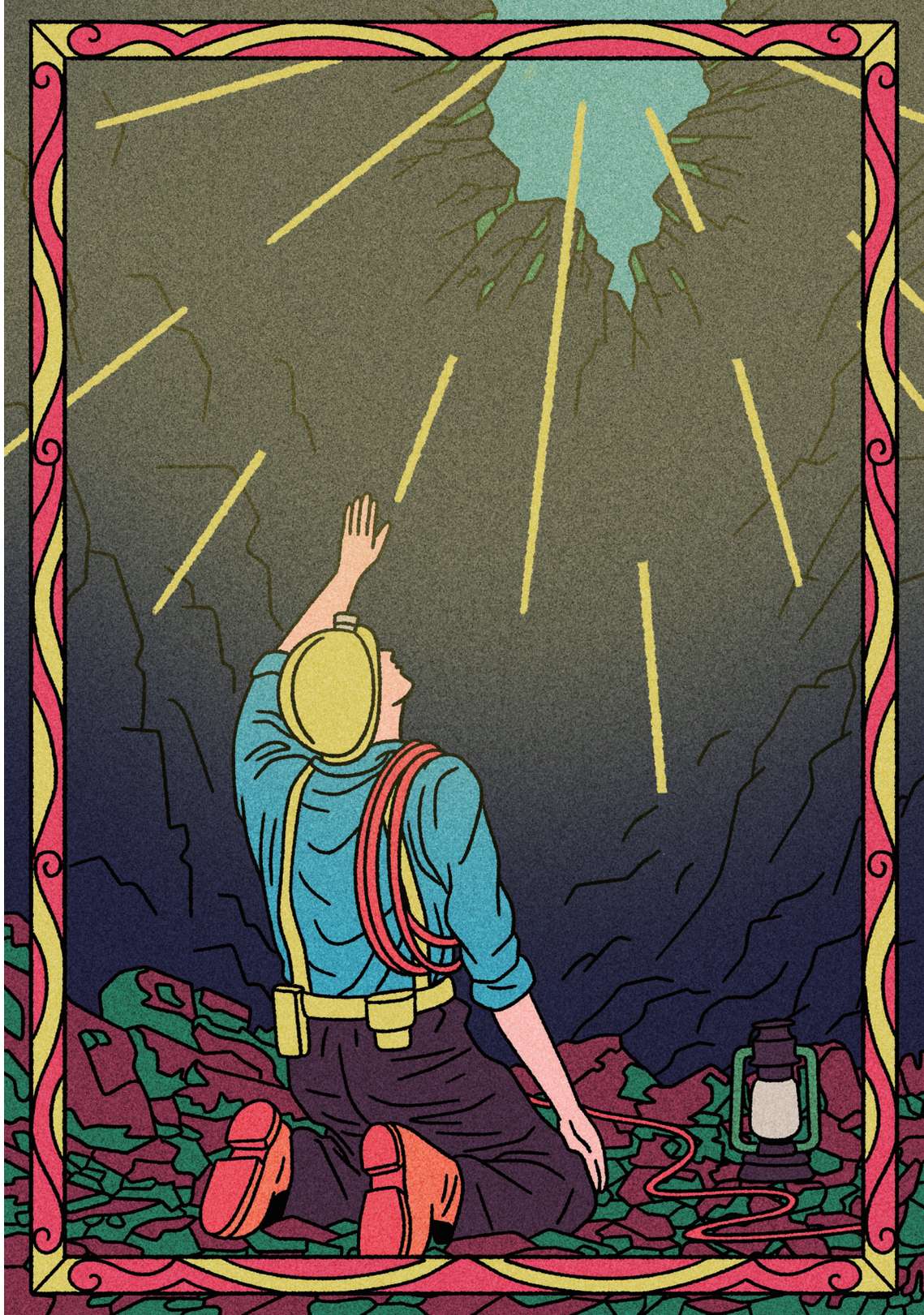
낯 선 땅에서의 삶

독일이라는 낯선 땅을 처음 밟은 그는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이국적인 문화와 환경, 한국인과는 다른 독일인들의 모습 등 어느 하나 생소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병종 독일에 도착해서 뒤셀도르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빵을 주더라고요. 잘 먹었는데 상한 걸 먹어서 배탈이 나서 5년 동안 빵 냄새를 못 맡았어요. 빵집 근처도 못 갔죠. 독일에서 광산 가면서 도시락을 싸갔는데, 밥도 싸고 사과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9개월 만에 신체검사를 하는데 68kg 나가던 몸무게가 45kg 나가더라고요. 김치 생각은 당연히 났어요. 그런데 배추가 없어서 양배추로 김치를 담갔어요. 양배추는 많고 싸서 양배추 김치를 먹었죠. 맛은 있었지만 한국 배추 김치처럼 맛있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이 배추를 재배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김치를 만들어 먹으면서 한국의 맛을 그리워했지만, 나름대로 적응해 갔습니다.

낯선 문화, 생소한 음식들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독일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단연코 갱도에서의 경험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시루떡처럼 생긴 수평 광산에서의 작업은 험난했고, 낮은 갱도에서의 작업은 특히 끔찍했습니다.

이병종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낮은 갱도에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광산이 지층광산이라 시루떡처럼 생겨서 몇 백 미터를 기어다니며 작업해야 했어요. 너무 더워서 공기를 불어넣어도 암반이 뜨거워서 효과가 없었죠. 또한, 석탄 먼지가 많이 날려서 콧구멍이 막혔고, 나중에 기계 전공으로 가서는 밤 근무를 했는데 엄청 더웠어요. 수영장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땀이 나고, 경사지에서는 낮은 포복으로 작업했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빛을 갚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소리 없는 희생, 숨겨진 현실

1960년대에 한국은 재정적인 대출을 받는 대가로 자국민들이 독일 광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항해를 통해 도망칠 기회가 있었던 선원들과 달리 지하 갱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광부들은 보다 안정적인 노동력으로 여겨졌습니다. 파독 광산 근로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증인인 그는 채굴 작업장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위험했고, 공식적으로 보도된 것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이병종 저희가 파독을 가는 대가로 독일에서 차관을 사용 할 수 있었어요. 파독 광부들이 독일으로 파견될 때, 기능공이 부족해서 일부 자리를 채우기 어려웠어요. 선원들도 파견하려 했지만, 배 타고 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서 선원은 보내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광부들은 지하에서 일하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파독 광부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 실제로는 많았는데 통계상으로는 적게 나와요. 실제로는 백 명이 넘게 죽었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걸 숨겼던 거죠.



독일 광산에서의 일하는 현실은 채용 광고에서 그려왔던 이상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이 지금 그를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이병종 독일에서는 3년간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일했어요. 정직원들보다 10~15% 낮은 임금을 받았고, 터키 사람들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와 있었지만, 일본은 더 이상 산업연수가 필요 없다고 하여 한국 사람들이 대신 가게 된 것이었죠. 우리는 받은 돈의 100%를 한국으로 송금했고, 생활비는 잔업을 해서 충당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원래 10년 상환 계획이었던 빚을 4년 만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독일에서의 경험과 성장

고국에 멀리 떨어진 땅 독일에서 사랑은 가까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우연한 기회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여러 계절을 함께 보내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머나먼 땅 독일에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병종 우리 집사람은 사돈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독일에서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났죠. 우리 작은 어머니의 이종사촌 동생 사돈이 깍두기를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그걸 받으러 갔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은 1970년에 독일에 왔고, 저도 그 해에 독일에 왔어요. 몇 년 동안 여러 번 만나면서 지내다가 결혼했어요. 결혼 후 함께 독일에서 생활했죠. 우리 집사람은 70년에 들어왔어요. 나는 7월에 가고 우리 집사람은 8월에 들어오고…

독일에 수십 년을 살아온 그는 독일에서 기억나는 여러 에피소드 중 하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병종 카스트롭 라욱셀이라는 지역에서 한 한국인이 여러 대의 카메라를 훔쳤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자주 가다가 결국 들키고 말았죠. 이 사건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면서, 그 지역의 한국인들도 큰 망신을 당했어요. 같은 한국인들은 그 도벽 있는 사람을 비난하며 심지어 죽으라는 말까지 했고, 결국 그 사람은 자살을 시도했지만 헬리콥터가 출동해 구조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문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예외적인 사례로 보고 한국인들이 매우 양심적이고 부지런하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사실, 웃긴 건 한국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일에는 매우 부지런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웃음)





독일에서의 삶은 그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단어로 들릴 수 있지만 그는 독일 개인주의 문화로 인해 책임감과 인내심을 배웠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와 같은 방종을 줄일 수 있는 절제력과 통제력을 키웠으며, 개인의 다양한 삶을 존중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회적 풍토는 인생의 강약을 조절하고 중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병종 독일에서의 경험은 내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독일에서 책임감과 인내를 배우게 되었고, 삶을 서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도 배웠고, 술을 적게 마시게 되었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으면 독일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여유와 인내를 배우게 되었죠. 독일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았고, 본인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가 쎄다고 할 수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대가 쎄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이 없으면 독일에서 못 살아요.

다시 고국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

독일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지만 늘 조국인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민했지만 한국 교육 시스템의 치열한 경쟁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병종 우리 애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애들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서, 애들 졸업할 때까지 독일에 있기로 했어요. 결국, 가족 모두 독일에서 잘 적응했고, 각자 잘 성장했어요.



정년퇴직 후, 그는 독일마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른 시골로 가려던 계획을 변경하고 독일마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독일마을의 풍경은 토목공사도 전인 황량한 땅이었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내년에 다시 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듬해 다시 찾은 독일마을에서 현재 지금의 집(빌레펠트)이 분양이 안된 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생각한 그는 땅을 구입 후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병종 정년퇴직하면 시골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독일마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게 됐어요. 처음에 와서 보니 토목공사도 안 해놓고 완전히 계곡 같았어요. 그냥 땅만 보고 계약도 안 했어요. 내년에 다시 오겠다고 했죠. 다음에 와보니 두 군데는 분양이 안 됐더라고요. 저희 집이 옹벽이 높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8m 정도 되거든요. 사람들은 옹벽이 넘어지면 어쩌냐고 걱정하는데, 옹벽이 넘어지면 그건 내 팔자지, 술 취한 사람이 다 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웃음)





마이 하우스
'하우스 빌레펠트'

독일마을에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초기 계획과는 달리 행정기관의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집을 완성하고 독일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종 독일 마을에서는 초기 계획과 달리 행정기관의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 계획과는 많이 달라졌죠. 독일 마을에 처음 들어올 때는 큰 기대를 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독일 마을에서 4층으로 집을 짓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2층밖에 못 짓게 되어 있었거든요. 나중에 민원을 넣은 사람이 와서 사과하고 잘 지내게 됐어요.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의 이름을 그가 오랫동안 살았던 독일의 도시 빌레펠트에서 따 '하우스 빌레펠트'라고 명명했습니다. 빌레펠트는 독일에서 일곱 번째로 큰 도시로 약 35만 명의 인구가 모여사는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머물며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따듯한 가정을 이루고 세 명의 자식들이 태어나 자라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이 도시와의 특별한 인연을 오랫동안 간직하고자 집 이름을 '하우스 빌레펠트'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병종 우리 집 이름을 '하우스 빌레펠트'라고 지은 이유는 내가 살던 빌레펠트라는 도시와 관련이 있어요. 빌레펠트는 독일에서 일곱 번째로 큰 도시였고, 남해보다도 더 조용했어요. 인구는 약 35만 명 정도였지만 정말 조용했죠. 그 도시에서 오래 살았고,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모두 그곳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대학은 다른 도시에서 다녔지만, 막내는 빌레펠트에서 대학을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상의한 끝에 집 이름을 '하우스 빌레펠트'로 정하게 됐습니다.



'하우스 빌레펠트'는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이 듬뿍 담긴 곳입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집을 지었습니다. 독일 건축재료연구소에 근무하는 친구의 자문을 받아 아토피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황토로 만든 숨 쉬는 벽돌을 사용하여 집을 지었고, 집의 모양새 또한 직접 고안하여 아내의 지인인 설계사의 도움을 통해 완성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집입니다.

이병종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어서 집을 지을 때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독일 건축재료연구소에 있는데,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유니포 벽돌이라는 벽돌을 쓰라고 하더군요. 유니포 벽돌은 숨 쉬는 벽돌로, 황토로 구워서 만들기 때문에 아토피 같은 게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건축재료는 내가 다 독일에서 갖고 왔어요. 독일에서는 가정주택을 콘크리트로 못 짓게 해요. 그러나 한국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아토피가 큰 도시에 사는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시골에 사는 아이들한테는 별로 없죠. 피부에 제일 좋은 게 황토 흙이라고 하더군요. 옛날 한국 가정집은 전부 황토 흙으로 벽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었어요. 모양새는 내가 고안해서 우리 집사람의 절친의 딸이 설계사인데, 설계를 부탁해서 했어요.

앞으로의 독일마을

그는 독일마을이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남해군청에 독일마을에 방문한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놀이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독일마을이 단순히 하루 둘러보고 가는 장소가 아닌 머무를 수 있고 머물고 싶은 장소로 발전하길 희망했습니다.

이병종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가족이 오면 애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야 하고,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죠. 행정에 독일마을이 하루 둘러보고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루 묵고 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산 계곡 산책로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공터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아쉬워요.







이병종에게 독일마을이란?

독일마을에 정착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는 그에게, 독일마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병종 이병종에게 독일마을은 가족의 생활과 삶에 중심이 되는 사회를 선도하는 마을입니다.

독일마을는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맺은 인연이 담겨 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직접 집을 지으며 흘린 땀, 이웃들과 함께한 소소한 일상,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한 추억들. 이 모든 것이 독일마을에서 이룬 꿈이자, 앞으로도 이어질 꿈일 거예요.



아름다운 나의 천국

권광순 간호사의 이야기

제 3세계에 대한 호기심

권광순 간호사는 1972년 11월 독일로 떠났습니다. 70년대 당시 한국 생활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남녀 성평등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컸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시절, 여자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한국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독일로 떠나기를 마음 먹습니다.

권광순 저는 1972년 11월에 독일로 갔었어요. 그때 70년대 우리나라의 생활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남녀의 성평등도 지금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선호 사상이 컸고, 누이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오빠나 남동생을 가르치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그 당시 한국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에, 파독은 우리의 큰 꿈을 이뤄줄 수 있는 희망이기도 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독일행을 반대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이 먼 타국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걱정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 또한 마음 한 편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이 더 컸습니다.

권광순 부모님은 반대하셨죠. 그때 결혼 시즌쯤 되고 이러니까 '결혼을 하지, 왜 독일을 가냐?' 더군다나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나라를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죠. 저도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녀는 독일로 먼저 파독을 떠난 그녀의 친언니의 독일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본격적인 독일행을 꿈꾸게 됩니다. 언니가 보내준 옷과 초콜릿, 사진들은 그녀의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21살에 세계를 여행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집안의 책임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그녀는 독일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모험심에 가득 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권광순 여기 저희 집 벨라하우스 옆에는 드라마 〈환상의 커플〉 촬영지였던 〈철수네 집〉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제 친언니의 집입니다. 저희 언니는 60년대에 학생 간호사로 먼저 파독하셨고, 가끔 그곳에서 보내주신 옷, 초콜릿, 컬러 사진 등을 보면서 저도 파독을 꿈꾸게 됐죠.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나, 결혼을 해버리면 꼼짝도 못 하고 집에서 살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곧바로 시험을 치르고 해외개발공사에서 독일어 수업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파독을 준비해서 1972년 11월 독일로 떠날 수 있게 됐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 적당히 배워 남편 잘 만나 결혼해서 살면 된다는 인식에 반해, 저는 뭔가 한국을 벗어나 큰 세상을 보고 싶다는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께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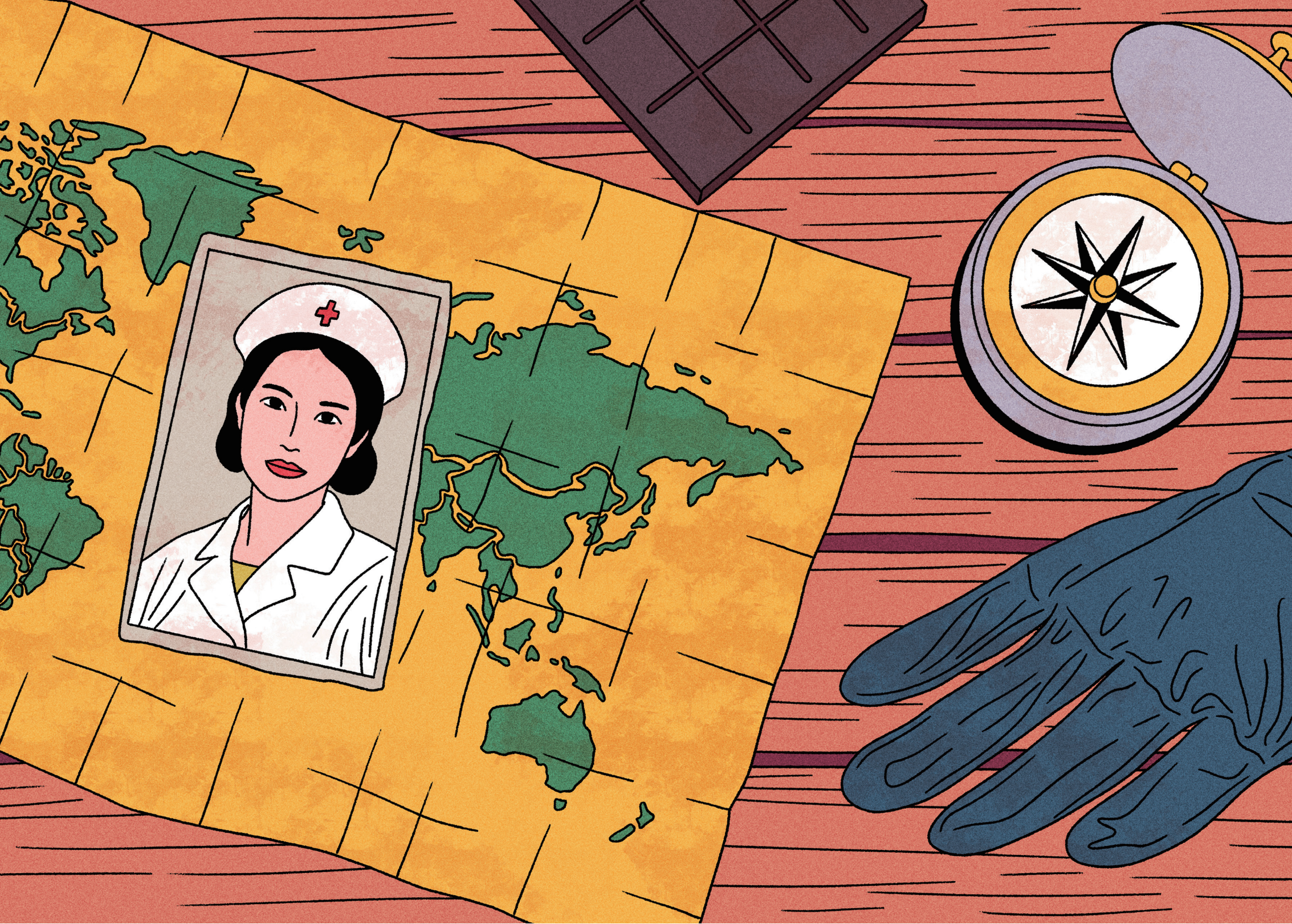
그녀의 나이가 21살 때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집안을 돕기 위해 돈을 벌어 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언니가 먼저 독일에 갔기 때문에 그녀는 집안에 대한 책임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오히려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정신과 함께, 독일이라는 낯선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독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권광순 제가 21살 때였어요. 그 시절은 집이 가난해서 돈을 벌어 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언니가 먼저 독일에 갔었고, 제가 동생이기 때문에, 집에 대한 책임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독일이라는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도전정신 같은 거였죠. 그래서 독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취업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파독 간호사 자리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했습니다. 그녀는 이토록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갔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적으로, 빠르게 독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권광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시험을 보는 것도 그렇고요. 독일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매일매일 헤드폰을 착용하고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헤드폰을 착용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그것을 쓰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성적이 잘 나와서 빨리 간 편이었어요.



외지의 땅 독일,
그리고 이방인

그녀는 김포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독일로 떠나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울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이별은 그녀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피어올랐습니다.

권광순 그날은 가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때 김포공항에서 떠났거든요.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이 크지만, 그때는 김포공항에 출령탑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고, 저희는 거기서 버스를 타고 비행기 탑승 게이트까지 갔습니다. 떠나는 입장이니까 가족들과 손을 흔들며 들어갈 때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행기에 타서는 모두 울었습니다. 같이 떠나는 간호사들과 '정말 떠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함께 슬퍼했어요.

서울에서 20시간 넘는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퀼른 공항, 그녀는 생소한 알파벳 표지판과 키가 큰 독일인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또한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녀를 감싸는 이국적인 냄새와 풍경은 그녀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권광순 서울에서 20시간이 넘은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은 퀼른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밤이 늦은 시간에 도착해 공항 로비를 둘러보니 글씨는 모두 알파벳뿐이었고, 사람들은 모두 키도 크고, 코도 크고, 피부도 하얀, 그야말로 백인들이 사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곳에서 우린 동료 3명을 만났고, 우리가 배치된 병원 사무장님을 만나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의사소통을 하고 4시간쯤 달려 북쪽에 있는 올덴부르크라는 소도시에 도착했어요. 거기를 가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가 없었거든요. 대전까지만 고속도로가 있었고, 저는 광주가 고향인데 거기는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기차를 타고 10시간, 11시간 이렇게 타고 다닐 정도인데 독일에서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그때 이제 '여기가 독일이구나' 냄새도 그냥 독일 냄새.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그러고 병원에 도착해서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에서 차도 사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게, 또 일단은 사람이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이색적이었죠.

독일에서 그녀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인들은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일은 그녀에게 큰 사명감이었습니다.

권광순 그때 당시에 한국을 전혀 몰랐죠. 항상 '어디서 왔니?'라고 묻거나, '한국은 어디쯤 있는 나라야?'라고 물으면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했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본과 중국 그 사이에 있는 나라, 거기서 우리가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한국을 몰랐죠.

그녀는 독일에서 계약 기간인 3년 동안 지내며 인종차별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독일인들은 한국 간호사들의 부지런함과 친절함을 높이 평가했고, 그녀는 독일인들로부터 우호적이고 편견 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종종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접할 때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권광순 저는 독일에 3, 4년 정도 있었어요. 계약 기간이 3년이었는데, 3년 마치고 바로 왔기 때문에 인종차별 같은 것들은 많이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한국 간호사의 부지런함과 친절함을 높이 평가했고 그래서 한국인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눈치도 빠르고 일하는 것도 그냥 슬슬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발소리를 탁탁탁 거리면서 다닐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히 다녔거든요. 저희들도 너무나 낯선 삶이라서 독일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보내주는 언어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나갔어요. 늘 단어장을 끼고 다니며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요. 병원 근무를 위해 한마디의 말이라도 빨리 익히는 게 매우 중요했거든요. 아무튼 근로노동자들을 위해 편견 없는 대우를 해줬던 그 당시 독일 정책이나 동료들에게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크죠. 다시 생각해 봐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편견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당했다는 기사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서 노동을 했지만, 그런 차별은 받지 않고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으로 바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기숙사 방을 하나 줬는데 그 기숙사 방이 우리 교실만큼 컸어요. 그때 초등학교 교실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데 그 교실만 한 곳에 침대하고, 소파 있고 그다음에 옷장 있고, 세면대 있고 이렇게 해서 있을 수 있는 거는 다 있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방 조그만 거 하나에 여자 형제가 다 같이 잠을 잤는데. 여기 오니 정말 방이 크니까(웃음). 그런 방을 저희들한테 줬었고, 독일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월급도 받고, 나이트 근무하면 야간수당도 나오고, 주 5일 근무도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독일은 이미 주5일 근무였어요. 그래서 쉬는 날 야간수당으로 쌀을 사서, 밥을 해서 동기 셋이 같이 나눠 먹고 그랬어요(웃음)."



그리운 고향

독일에서의 생활은 즐거웠지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고향의 맛, 김치가 그리워 직접 김치를 담그게 됩니다. 김치를 담그는 일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배추가 없던 독일에서 배추 대신 양배추를 사용해 김치를 담갔고 기숙사 다락방에 숨겨두었던 김치가 익어가며 냄새가 나는 바람에 기숙사 멀리 떨어진 곳에 김치를 버리고 눈물을 흘린 기억을 이제는 웃으며 떠올립니다.

권광순 독일에 가기 전에는 별로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 특별한 요리를 할 수는 없었지만, 휴일이면 유일한 즐거움이 동료들과 밥을 해 나누어 먹으며 고국의 얘기를 나누는 것인데 밥에는 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은 김치가 없는 게 가장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김치를 담아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있던 곳에는 김치를 만들만한 재료가 없어 샐러드용 양배추를 구입해 출국할 때 가져간 고춧가루에 버무려서 김치를 비슷하게 담았어요. 적당히 간이 밴 양배추가 고춧가루와 어우러지니 모양은 그럴싸해졌는데 김치를 숨겨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부엌에는 냉장고도 다 있었지만, 냄새가 날까 봐 그곳에 넣어둘 수도 없고 일주일에 두 번씩 오시는 청소 아줌마 때문에 방 안에 두는 건 불가능했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붕 꼭대기 빈 공간 다락을 생각하고 그곳에 숨겨두었죠. 당시 독일에는 다락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익으면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기숙사에 크랑켄슈베스터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수간호사가 계셨어요. 그 독일 할머니 간호사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김치가 막 익기 시작하니, 기숙사 복도를 내내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지금 빼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밤을 기다려 기숙사에서 한참 떨어진 개천가로 가서 그 아까운 김치를 버리고 돌아오면서 엉엉 소리 내 울었죠. 나의 조국 한국이 너무 그리웠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김치를 버렸다던 그 개천



그녀에겐 독일에서 겪었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특히, 마늘에 대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당시 마늘을 많이 먹지 않던 독일인들 사이에서 마늘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눈치가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독일인들은 치즈를 먹어서 치즈 냄새가 나는데 왜 우리에게만 마늘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냐며 흉을 봤던 추억들이 생각나 웃음을 보였습니다.

권광순 거기도 주말에 열리는 마르크트 플라츠라는 간이 시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봤는데 독일에 조그마한 생선이 있더라고요. 해링이라고. 그 생선 같은 거를 사다가 소금에다가 절여서 액젓을 직접 만들었죠.

그 당시에 독일에는 마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늘은 못 넣었어요. 사실 그 뒤로는 저도 발이 넓어지니까 마늘을 어디서 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늘을 먹고 가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야단이니까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마늘을 안 먹었어요. 그 후로는 독일 사람들도 마늘이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을 말려서 가루로 빻아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마늘 같은 거 먹으면 정말 몸에서도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치즈 먹어서 치즈 냄새가 나면서 왜 우리한테만 마늘냄새 난다고 그러냐면서 우리끼리 흉을 보고 그랬죠.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재밌었어요(웃음).

그리고 그녀에겐 한국이 그립고 돌아가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었고, 당시 한국 정세가 불안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약 기간 3년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권광순 당연히 그립죠. 사실은 생활이 3년 정도 되면 오히려 쉬워져요. 1년 차엔 외국 생활이라는 것은 일단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3년 정도 살면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생길 때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제가 오고 그다음 해에 육영수 여사가 시해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국에 금방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는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차라리 가족과 친구를 불러서 여기서 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불안하기도 했었고, 독일에 3년 살고 나니까 자신이 생긴 상태잖아요. 어디든지 내가 가서 살 수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약간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갈 때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한국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3년만 살다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그냥 돌아왔죠."

그녀는 3년간 독일에서 생활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첫사랑처럼 남아 있습니다.

권광순 저는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갔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죠. 물론 거기서 살면서 힘들고 그랬겠지만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단기간(3, 4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아름다운 것 같고, 정말 다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거기서 살다 보면 하나의 삶이 되었을 텐데, 저한테는 그냥 첫사랑처럼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을 생각하면 참 좋아요.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보존하는 독일인들의 태도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근면함과 검소함, 성실함을 배우게 했고,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권광순 유럽 하면 문화유산이죠. 어디도 흉내 낼 수 없는 것. 오래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다루는 그들의 안목에서 오늘날 유럽의 문화가 형성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쓸어내고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주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반전시켜 나가는 집념. 그래서 건물도 오래된 집이 더 값이 나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 갈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었지만, 그 후로는 경제가 많이 살아났잖아요. 제가 3년의 파독을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그 후로도 독일은 자주 갔었어요. 언니가 한 50년 살고 계셨으니까요. 어느 순간 경제 사정이 우리나 독일이나 비슷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풍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소비적이었고, 보이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한참 경제 부흥이 되면서요. 그렇지만 그 문화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교육관이라든지 몸에 밴 근면, 성실, 검소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장 부러웠던 게 그때 우리는 자가용은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자가용을 타고 다닐 정도였어요. 산책을 하다 보면 자가용 옆에 파라솔을 펴놓고 식구들끼리 앉아서 티타임을 가진다든지, 피크닉에 온 것처럼 빵을 먹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장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단란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국에 왔었죠.



그녀는 독일의 빵 '브뢰첸'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신선하게 구워진 브뢰첸의 냄새와 맛을 사랑했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녀는 아침마다 브로첸을 즐기며 독일에서의 추억을 되새깁니다.

권광순 브뢰첸을 좋아해요. 브뢰첸은 빵인데요. 아침에 빵을 사러 가면 바로 구워서 파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우리는 빵에 곁들여 먹는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빵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얹어서 먹어요. 아침에 브뢰첸에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죠.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먹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이니까 아침은 빵을 먹고 점심, 저녁은 밥을 먹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밥이죠. 그리고 김치(웃음)

다시 한국으로

그녀의 친언니는 그녀보다 일찍이 남해 독일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녀의 언니로 인해 그녀는 독일마을을 알게 되었고 이윽고 그녀도 이곳에 집을 짓고 살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초기의 독일마을은 자연 친화적이고 조용한 곳이었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조금은 시끄러워졌지만, 여전히 그녀는 이곳이 좋습니다.

권광순 저는 귀국한 뒤에 결혼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45년가량 쭉 살았어요. 그러다가 독일에 살던 언니가 먼저 독일마을에 왔고 저도 자연스럽게 자주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되었죠. 그때 독일마을은 더 독일스러웠어요. 아주 조용했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풀벌레 소리가 많이 들리고, 새소리가 너무 이쁘게 많이 들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조용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래도 여기에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전히 좋습니다.

그녀는 독일마을에서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친언니와 함께했던 시간이라고 기억했다. 비록 오랫동안 언니와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언니와의 추억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권광순 언니랑 같이 있었을 시절이 좋았어요. 언니 계셨을 때요. 사실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언니는 독일마을 부지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독일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에 한 달 정도 여기 와 있다가 또 독일에 가 계시고 이러시다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살지는 못했죠.



가파르고 빨간 지붕에 하얀 벽, 원형으로 만든 정원이 그녀 집의 특징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바다 풍경은 그녀의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입니다.

권광순 땅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빨간 지붕에 하얀 벽을 칠한다든지, 지붕은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집 앞을 좀 원형으로 만든 게 좀 다른 점이고, 앞에 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고 하는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훨씬요(웃음). 한 번은 관광객이 오셔서 '아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 이래요. 그럼, 속으로 그러죠. '한번 해보세요(웃음).' 저기 앞에 풀도 너무 잘 크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점점 힘겨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여기서 뜨거든요. 그러면 그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바닷가가 너무 너무 예뻐요. 그리고 1월 되면 일출 보러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바로 일출이 다 보여요. 너무 좋죠.



그녀는 지금도 독일의 그리운 순간들을 가끔 떠올리곤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들, 낙엽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산책길,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며 고국을 그리워했던 나의 청춘... 그녀에게는 여전히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권광순 그때를 떠올리면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나요. 함께 울고 웃던 친구들과의 추억도 그립고요. 독일은 맥주로 유명하지만, 사실 저는 맥주를 전혀 못 마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맥주를 앞에 두고 서로 의지하며 기대곤 했었죠. 그 시간이 자주 생각나요.

또 거기는 나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산책을 가면 낙엽이 무릎까지 막 올라오는 그런 길들도 있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걷다 보면 하늘에 비행기가 떠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비행기를 타면 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과연 한국이 저 하늘 끝 어디에 있을까?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다시 한국을 간다는 게 이제 너무 아주 까마득한 거예요. 가서 첫해를 보내면서는 정말 한국이 어디 저 하늘 끝에 있나? 있긴 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 독일의 병원에서 우리를 다 비행기로 태워 왔지. 내가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탄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을 때니까요."

그녀의 오래된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반짝거리는 눈물만큼 반짝이는 추억들은 우리의 가슴마저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일 새 없을 만큼 그녀는 자주 이 보물함을 열어 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너무 행복했던, 반짝였던 그때를요.

이제는 반짝이고 잔잔한 남해바다를 보며

그녀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앞으로의 독일마을

그녀는 남해 독일마을이 앞으로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파독 간호사들의 삶을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독일마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권광순 지금 이 독일 분위기가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안에는 정말 그때 독일에서 살았던 사람들, 파독을 했던 사람들의 삶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의미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관광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의 의미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파독전시관에서 해설을 할 때나 기회가 되면 오시는 분들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여기 사람들이 독일이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술 마시고 노는 그런 관광만이 아니고 진짜 의미를 알고 갈 수 있는 관광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그녀는 세대 차이로 인해 이 말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지만 자신의 세대 그리고 독일인들의 몸에 밴 절약 정신을 젊은 세대가 이해하고 실천하기를 바랐습니다.

권광순 지금은 세대 차이가 나서 저희의 생각만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면은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저희는 물 한 바가지도 그냥 허투루 쓸 수 없었던 시절이었고요. 제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화장지 하나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낭비하지 않았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열 사람이 모여야 성냥 한 개비를 켜서 담배를 피운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근검절약하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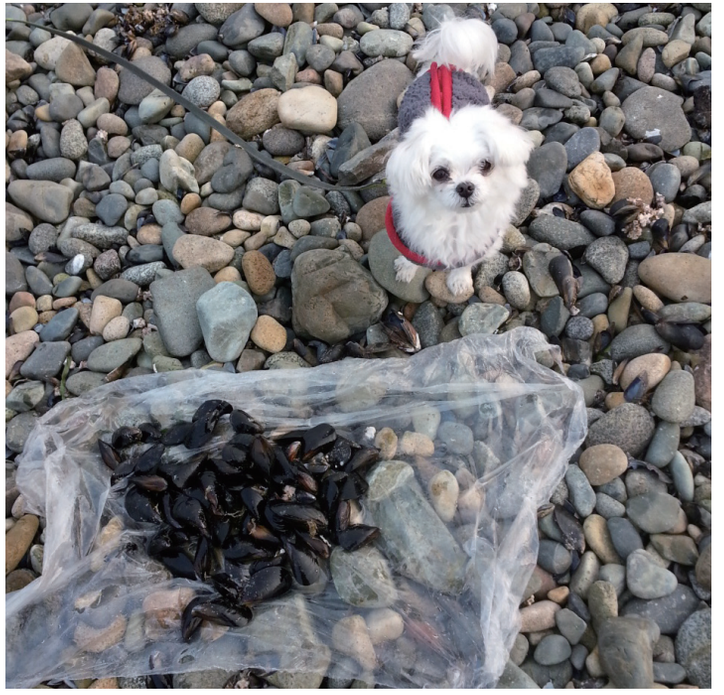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낭비하는 생활을 하면 사실 걱정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애들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녀는 파독 간호사로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독일로 갈 것이며, 독일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권광순 저는 제가 살아왔던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독일에 가서 20대 초반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삶에 접목을 해가면서 쭉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독일에 갈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이 보낸 항공 엽서가 파독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엽서 한 장을 작은 글씨로 빼곡히 쓰고, 남는 여백까지 채우며 서로의 소식을 전한 그들의 애틋한 마음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편지로 독일에서의 3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그녀의 얼굴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묻어나 보였습니다.

권광순 남편마저 떠나버렸어요. 독일마을에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에요. 저에게는 남편이 첫사랑이었고 또 마지막 사랑이었거든요. 저희 편지도 전시관에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보냈던 편지, 지금도 항공 엽서로 전시관에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일반 편지를 하면 그게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램 수를 측정해서 비용을 매기기 때문에 편지는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냥 엽서로 하는데 엽서를 속에 다 빼곡히 쓰고 겉장에 다가 또 쓸 정도로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랬죠. 그러면 편도가 한 열흘 정도 걸리는데 거의 한 달이 돼야 왔다 갔다 한 번씩 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연애를 했었고, 그래서 독일에서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 보내주어고마워. 나는 행복해 "빛"아의 좋은 것을 아직 많은 스펙트럼이 아이 예쁜이었구나. 행복하고 많은 것이야. 나의 가족에게 많은 관심은 한국인의 가장 (중요)이 것이고 또 "빛"도는 언제나 있기에는 이렇게 좋은 것을 제외해 나를 놀리도록 하였어.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언니가 결혼해야 할 것인데 언니는 지금까지 왜 했지요? 모든 것은 나보다는 "빛"아가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만남으로서 지금은 하나님과 그에게 결혼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게 어떤 만을 바라는요? 나는 결혼하고 우리 상아 같이 부부 생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네. 우리에 행복이 된 언니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많은 축하해 주고 또 생활을 그들의 언니는 것에게 주는 그 상처 받이 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태양자인 어머님을 그리워 하시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렇게 좋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고 나는 알았어.
나의 이사를 말했는데 지연이 정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서로 정하지 못했어요.

할수없는 바쁜 가운데서 상세히 써주는 편지에 ——
나의 ... ... Card 아직에 아주 감사를 전한 줄 알아.
지금까지 나의 birthday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직 "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태어난 날에.
아직도 나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와 이제은 나를 가까운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20, 5월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이 우편물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야 첨부하지도 못합니다
Nothing may be contained in or attached to this letter.

FOLD HERE 접으세요

할수없는 바쁜 가운데서 상세히 써주는 편지에 ——
나의 ... ... Card 아직에 아주 감사를 전한 줄 알아.
지금까지 나의 birthday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직 "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태어난 날에.
아직도 나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와 이제은 나를 가까운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20, 5월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이 우편물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야 첨부하지도 못합니다
Nothing may be contained in or attached to this letter.

Yoon Sun-Park.
204-6ft, Jukmang-Ri Dong
Dong daemun-Ku.
Seoul, KOREA.

AEROGRAMME

To; Leon Soon-kwen (윤순)
c/o Bonn-Yonsberg
Univ. Medic. Klinik
St. Norwyn

PAR AVION
항공우편

Dear Cousin.




POST

권광순에게 독일마을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깃든 이곳, 그녀에게 독일마을이란 어떤 의미일까?

권광순 권광순에게 독일마을은 만남의 장이고 헤어짐의 종착역이다.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독일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종착역에 가까워보니 사랑했던 언니가 먼저 가고, 뒤로 사랑했던 남편이 떠나버렸어요. 최근에는 같이 살던 사랑하는 강아지마저 먼저 가버렸어요. 슬프지만 이제 종착역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어요.

저의 종착역이 아름다운 독일마을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도착,
새로운 출발

양경희 간호사의
이야기

새로운 출발

양경희 간호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선택해 1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이 독일에서 살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었던 그녀, 훗날 운명처럼 파독의 기회가 찾아왔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빨리 독일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가기 전에는 한 달 동안 독일어를 배우며 차근차근 독일행을 준비했습니다.

양경희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1년 동안 독일어를 공부했었거든요. 물론 큰 도움은 안 되어 다시 공부했지만요(웃음). 당시에는 제2외국어 수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그냥 독일어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를 배우고, 뭘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후에 제가 독일에 갈지도 까마득히 몰랐죠(웃음). 독일에 가는 것을 결정하고, 독일어를 공부할 때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독일에 가기 전에 해외 어학연수를 한 달 동안 진행했고, 독일에 도착해서는 두 달 동안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독일어를 배웠어요. 독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언어부터 공부를 시작한 셈이죠."

독일로 떠나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에게 가족들과의 작별은 큰 슬픔이었지만 본인보다 더 슬퍼할 가족들을 위해 애써 모질게 굴었다고 회상합니다.

양경희 식구 14명이 마중 나왔었나? 그래요. 엄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려고 하시길래. "엄마 우는 거 나 싫어. 내가 택해서 가는 거야."라고 모질게 말했어요. 사실 마음은 저도 슬픈데, 저까지 슬퍼하면 엄마가 더 울 것 같았어요."



양경희



이은우

낯선 타향살이

처음 도착한 독일은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녀가 머물게 될 기숙사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독일 여성들의 당당한 걸음걸이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녀는 할머니까지도 자신감 있게 걷는 독일인들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세상에 온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양경희 처음 도착한 독일은 추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긴팔 원피스로 갈아입고, 기숙사로 향했어요. 당시 기숙사는 환자 6명 있는 방을 개조한 2인용 기숙사에 당시에 월세가 30마르크 정도였어요. 친구들은 2인실 방이라 제 방이 비교적 넓었어요. 방 끝에 창문이 있어서 밖을 내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의 걸음걸이가 한국이랑 다르게 엄청 당당하고 멋있었어요. 할머니들까지도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한국 사회가 좀 답답하게 느껴졌었는데, 독일은 다른 곳 같았어요.

그녀에게 독일에서의 첫 경험은 놀라움과 감사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양경희 일을 시작하고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독일 동료들과 월급, 휴가 등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온 국민이 검소해요.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아끼는데, 자기의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게 특징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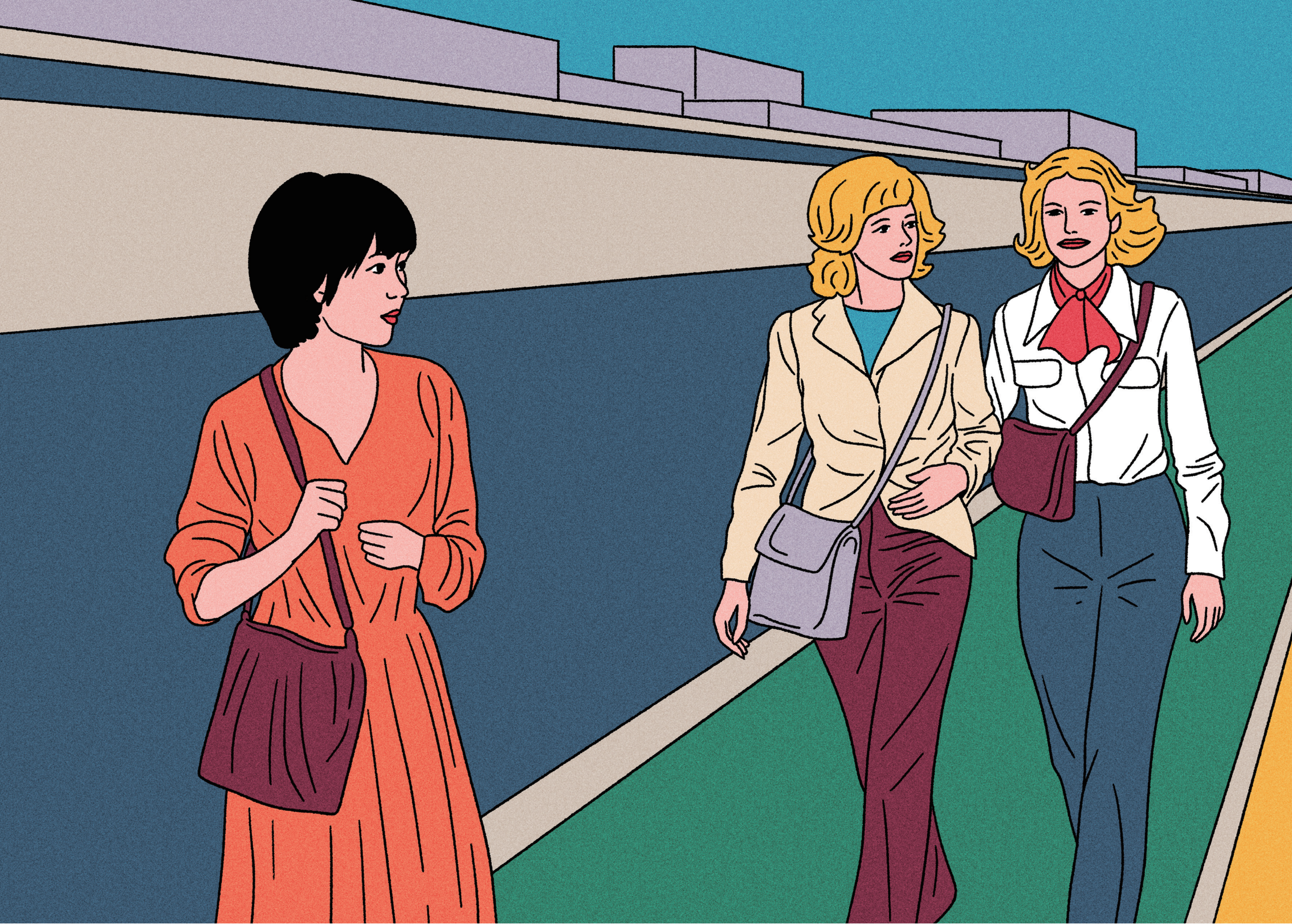


그녀는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 속 단순 직업적 역할을 넘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들을 하며, 간호사로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양경희 하루는 키가 큰 노인, 할머니 환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하셔서 진료를 했는데, 결과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간호사가 짐을 정리해야 해서, 할머니가 들고 오신 큰 가죽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열어보니 20개가 넘는 열쇠 꾸러미와 보석들이 대충 담겨 있었고, 엄청 두꺼운 저금통장 한 묶음도 있었습니다. 저와 동료는 그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적느라 힘들었어요. 적으면서 생각해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마지막을 알면서 모든 귀중품을 다 가지고 오셨지만, 결국은 자신이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그 물건들이 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녀에게 낯선 환경, 언어적 장벽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타인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양경희 처음 죽은 환자를 봤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간호사와 함께 시체를 닦을 때 너무 무서워서, 같이 일하는 간호사가 화장실에 가려고 밖으로 나가면 저도 따라 나가곤 했죠.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어느 날, 밤 근무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때문에 몸이 약간 굳어 있었는데, 의사가 오기 전에 몸을 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섭지만 시체를 마사지해 몸을 다 펴고 씻기고 옷을 입혀 드렸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체를 닦는 요령도 생기고 무서움도 덜했어요. 하지만 지하에 있는 시체실에 시체를 옮길 때는 항상 무서웠어요. 수술 중에 돌아가신 분은 그 상태로 시체실에 오기도 했고, 여러 시체가 있는 시체실에 시체를 옮기고 나올 때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독일 생활에 점차 적응해서 살던 어느 날, 근무 중 전보가 도착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비행기표를 예약해 도착한 한국, 쌍문동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그녀가 원래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달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그녀를 기다린 사람처럼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양경희 2인실 기숙사에서 독방을 쓰는 기숙사로 이사를 했어요. 100년 된 건물로, 오래된 기숙사 중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어요. 근무 중에 전보가 왔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만 했고, 비행기표를 급하게 예약했어요. 4월 말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상황이 좀 드라마틱 했어요. 한국에 있는 집이 이사를 했었거든요.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단층집을 완공했어요. 저는 그 집을 가본 적이 없고, 주소만 알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무작정 갔어요. 쌍문동에 위치한 집을 택시 기사와 함께 힘겹게 찾았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는 체격이 마른 편이 아니셨는데 꽤 핼쭉해지셨더라고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죄인처럼 아버지랑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할 말이 많았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돌아가셨어요. 아마 아버지는 제가 오길 기다리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병환 중 성모병원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저희 가족 모두는 아버지를 위해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4월 말에 한국을 떠나 다시 독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는 있을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달 만에 우리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특별한 인연

아버지 임종을 지키고 다시 독일로 돌아온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료들과 함께 참석한 파티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꿀 특별한 사람,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양경희 동료들하고 파티에 간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날 동료들하고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제가 있는 쪽으로 오더니,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서 '저하고 춤추실까요?'라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오기 전에 이미 타이완 유학생이 제 옆에 딱 붙어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가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등장해서 얼른 일어났죠. 물론 남편이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고는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그때 한국 여자분이 독일 목사님하고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주선해서 홀랜드 여행도 저렴하게 다녀오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참여하는 파티에도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녀는 독일에서 독일인 남편을 만나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독일의 문화적 차이는 그녀에게 고민거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가족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가족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챙기고,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있죠.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 대해 그녀는 결혼 전에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 줄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녀의 설명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배려 덕분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양경희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가족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챙겨야 하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야 하는 그런 문화들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남편에게 그런 문화에 대해 미리 말해주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가정적인 편이라, 잘 이해해 주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고향으로의 귀환

그녀는 결혼 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적극적으로 이 결정에 동의했고,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특히 한국 독일마을의 맑은 공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양경희 남편도 적극 찬성을 해서 우리가 함께 한국에 와서 살게 됐어요. 남편은 독일마을의 공기가 좋다고 해요. 사실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재미있는 건 자기 친구들이나 결혼한 동료들과 같은 독일인을 만나면 한국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시어머니나 동료들 같은 한국인과 이야기할 때는 한국의 좋은 점만 얘기하곤 해요(웃음).

그녀는 그녀의 집에서 특히 넓은 마당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살던 뮌헨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사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독일마을의 환경은 그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남편과 함께 집을 짓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양경희 완전 좋았어요. 이런 큰 집에 마당까지 있다니요. 독일에 살 때는 뮌헨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이런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독일마을에 왔을 땐 처음부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집 디자인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독일마을에서 자신들만의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을 전공한 그녀의 동생이 심혈을 기울여 설계 도안을 그려주었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그녀의 남편이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목수와 가구 목공장인 남편 조카들이 한국에 와서 공사를 도와주며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족들의 따듯한 도움으로 현재의 집 '바바리아 하우스'를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경희 건축을 전공했던 제 동생이 심혈을 기울여 그려준 설계 도안을 우리 형편에 맞게 남편이 손수 그려서 도면을 완성했어요. 후에도 동생이 서류 건이나 목수까지 선택하고, 하나하나 도와주었어요. 참 고마워요. 사실 한국은 집을 조금 빨리 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만에도 집 하나가 완공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 집은 10년이 걸렸어요. 건축 골조 공사를 하면서도 환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독일식으로 창문과 문을 설치했어요. 목수와 가구 목공장인 남편 조카들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와서 3주 동안 두 번 와서 공사를 도와줬어요. 우리는 지붕을 넓게 만들어 햇빛이 잘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문과 창문 설치도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요. 대청소를 하면 곤충이 들어오는 일이 많을 것 같았는데, 독일식 문으로 완벽하게 막혀서 곤충 걱정이 없어요. 문을 완전히 닫으면 바깥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술·담배 판매금지
Maisel's
크리넥스
크리넥스

한국과 독일

아름다운 그녀의 집은 독일마을 방문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하는데, 방문객들이 자신을 어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녀의 집에는 사람들과의 따듯한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양경희 어제는 한 분이 들어와서 집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어떤 일이 신가요?"라고 물으니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갔어요. 때로는 외출 후에 다녀오면 마당에 나란히 앉아서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현관문을 열면 예쁜 아가씨가 꽃이랑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문 앞에서 친구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스마트폰을 들고 찍으려고 하니까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같이 찍고 즐기고 싶었지만 아쉬웠어요. 저희 집에서 사진 찍고 즐기시는 모습을 저는 아주 좋아해요. 저희를 어려워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독일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깨달은 바를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양경희 첫째는 외국 사람들에게 잘 대했으면 해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대해줘야 해요. 또, 물을 아꼈으면 해요. 한국 사람들은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너무 펑펑 사용해요. 저는 설거지를 할 때 큰 그릇에 물을 조금 넣어서 사용하고, 사용한 그릇은 쌓아 놓고, 자연광으로 말린 후에 닦아요. 손님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데 말이에요.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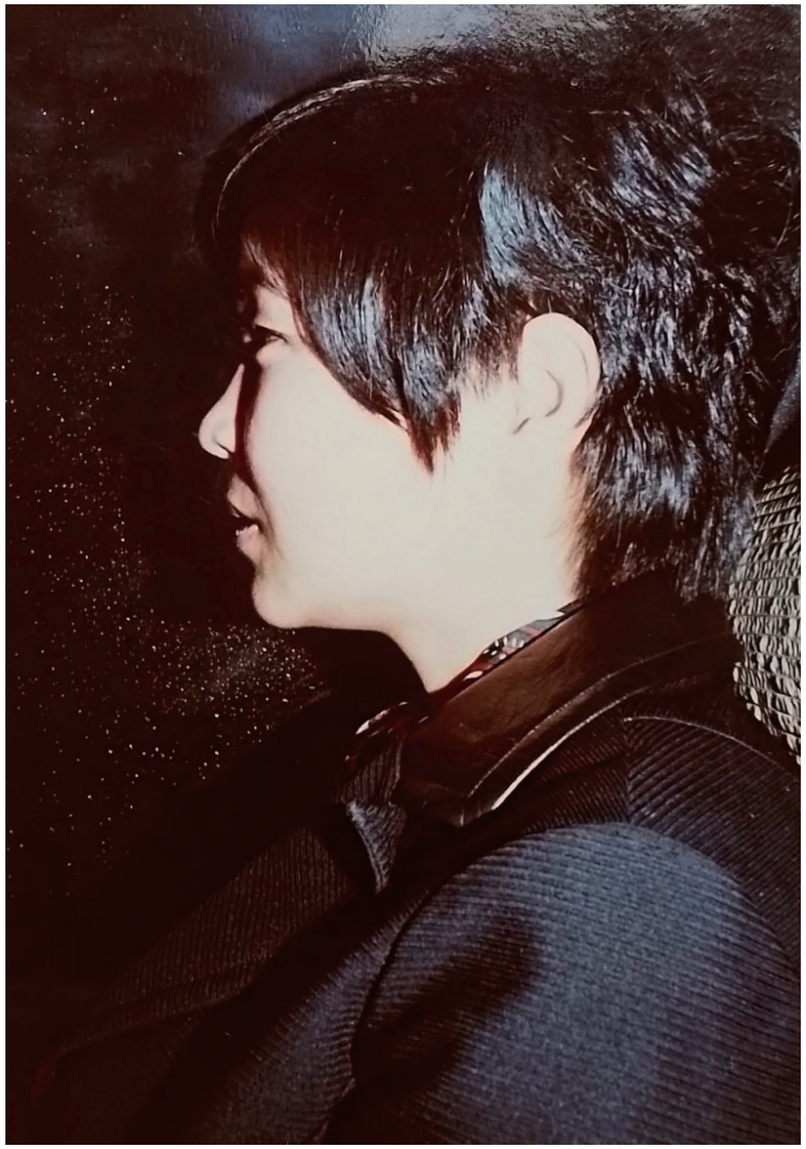


그녀는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독일로 떠나는 것, 독일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서서 장구를 치는 것까지, 독일에서의 무수한 경험은 그녀를 좀 더 용감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양경희 독일에서의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무엇이든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무용을 전공했던 유명하신 분이 독일마을에 수업하러 오셨는데, 장구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마을에 8명이 함께 배우기로 하고, 배워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장구를 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이 사라진 거예요. 그대로 10년 동안 그대로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남해문화원에서 장구 수업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배우게 된 장구는 일반적으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서서 치는 거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알아요? 막 뛰면서 장구를 치고, 세상에 처음에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요. 근데 괜찮아요. 운동 삼아 하기에 너무 좋아요. 이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독일에 가는 것, 독일에서 사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일어서서 장구를 치는 것도요.







독일에서의 삶을 회상하며, 그녀는 그곳에서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 없이 독일로 돌아갈 것이고, 특히 지금의 남편을 다시 만날 거라며 웃음 짓는 그녀의 미소에서, 독일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따뜻한 지지와 도움은 타향살이하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 또한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양경희 저는 과거로 돌아가도 독일로 갈 것이고, 남편을 다시 만날 거예요(웃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 보다 대체적으로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 주위에는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독일에서 삶은 너무 행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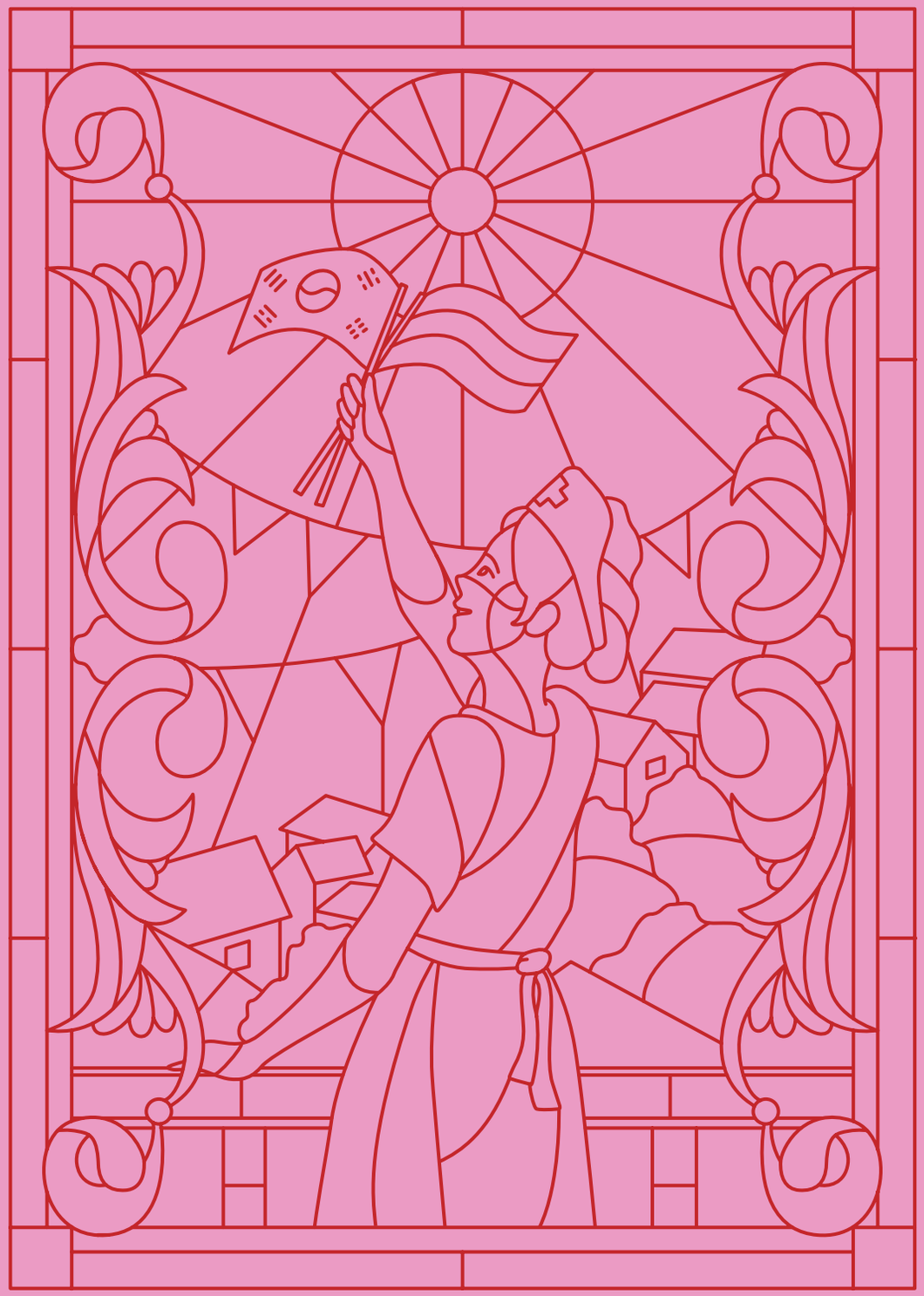


양경희에게 독일마을이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사는 그녀에게, 독일마을이란 어떤 곳일까?



양경희 양경희에게 독일마을은 제2의 고향입니다. 나이가 드니 점점 한국이 그리워졌고, 결국 돌아오게 되었어요. 고향으로요. 그 고향이 제2의 고향인 독일마을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나를 따르라

석숙자 간호사의 이야기

가족을 위해서, 독일로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만, 1960년대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마땅히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항상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석숙자 간호사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가족을 위해 독일로 떠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꽃다운 나이의 그녀들은 자신보다는 가족이 먼저였기에 나 하나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석숙자 1960~19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했어요.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 할 거예요. 학교를 졸업해 봐야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했죠. GDP가 필리핀보다 낮은 가난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던 찰나에 조선일보 신문에 '파독 간호요원 모집'이라고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인 내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서 응모를 했습니다. 당시엔 어느 집이든지 빚이 없는 집이 없었고 대부분 자식들을 6명에서 8명 정도 낳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독거렸었죠. 저뿐만 아니라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서울 해외개발공사라는 곳에서 2년 정도 간호 교육을 받고 1973년 3월 18일 동생과 함께 독일로 갔어요.

동생은 아직도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자주 오지만 한국에 와서 살고 싶지는 않다네요(웃음).

하지만 결심한다고 해서 모두가 독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집이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런 이들에게 파독 간호사 기회는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높은 경쟁률, 다양한 시험과 실습 과정 등을 모두 이겨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가능할지 알 수 없는 미지로의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그 기회를 잡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석숙자 우리 간호사들도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야 했어요. 간호대학에서 4년 배울 것을 2년 정도, 1~2년 더 빠르게 속성으로 배웠어요. 병원 실습, 보건소 실습까지 마치고 간단한 독일어 테스트도 받아서 합격을 해야 독일에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경쟁을 뚫고 간호학을 배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2년 고생을 하고도 국가고시에 떨어져서 독일을 못 간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물론 힘들었지만, 광부 아저씨들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대학 출신, 21세 이상, 군복무를 필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체력 시험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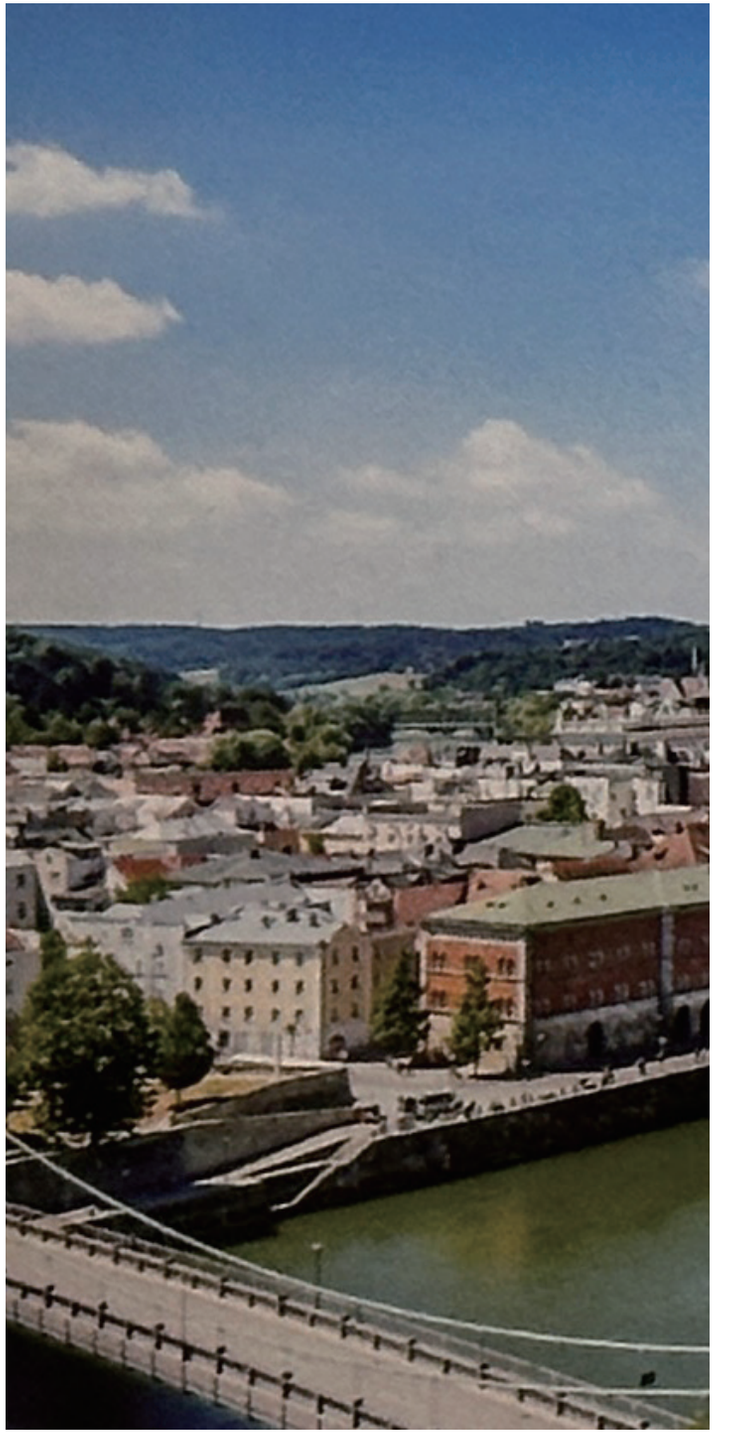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마땅한 23살의 나이였기에 그녀의 가족들은 완강히 반대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겠다는 딸의 이야기에, 부모 된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심지어 말도 통하지 않는 독일이라는 낯선 국가에 딸을 보낸다는 것은 쉽게 승낙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봐도 그 시절의 그녀는, 대담하고 용기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석숙자 그때 제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시집이나 가지 무슨 거기를 가냐'고 완강히 반대를 하셨죠. 그리고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 당시엔 서양인들을 코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코쟁이 나라에 가서 네가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살 거냐?'라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쓴 게 내 동생이랑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웃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대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녀는 독일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한 두가지가 아녔습니다. 한평생 비행기를 타볼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떠나던 날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신기함으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석숙자 1973년에 독일에 갔는데, 1970년부터 독일에 가기 위한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때 내 나이가 23살인데 독일이란 나라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랐어요. 비행기를 탄다는 자체도 장관, 국회의원들처럼 높은 사람이 타는 거라고 생각만 했지, 보통 서민들이 비행기를 탄다고 상상도 못 했을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럽을 간다? 그나마 미국은 어릴 때도 생각 정도는 해봤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은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상상의 대륙이지, 우리가 직접 거기에 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독일에 대한 지식은 전무할 수밖에요. 처음 비행기를 타던 날이 기억나요. 한국 사람들은 '좌변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걸 처음 봤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서 어떤 사람이 좌변기 위에 올라가서 용변을 본 거예요. 신발 자국이 남아 있으니까 독일 스튜어디스가 화를 내더라고요. 당시엔 다들 얼떨떨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누가 화장실 변기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본 거죠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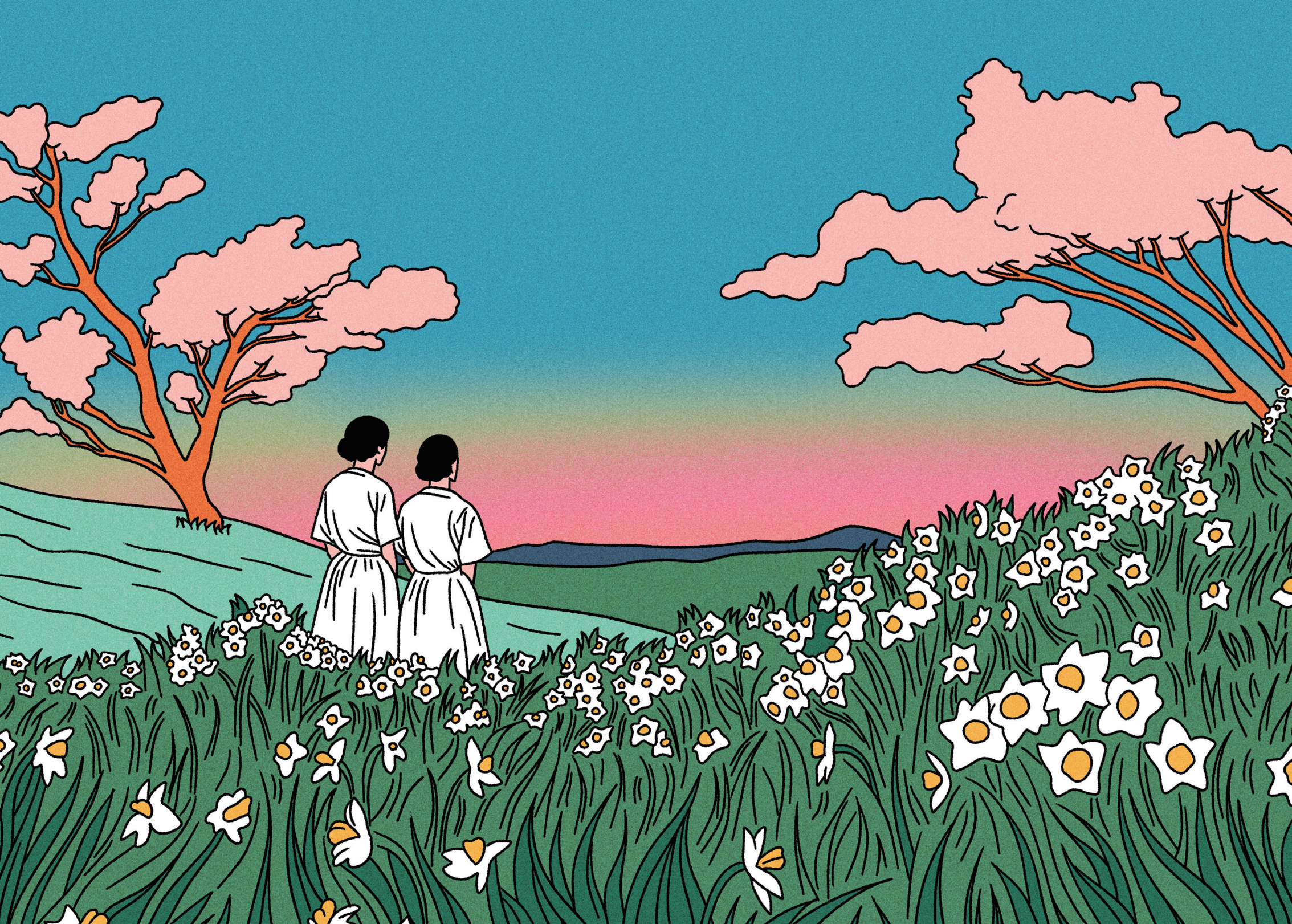
동화처럼 아름다운 곳, 독일

설렘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도착한 독일은 동화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난생처음 보는 풍경들은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하게 감탄을 자아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고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선택이 잘한 것이 맞을지 걱정이 많았던 그녀였지만, 그곳에 도착한 순간 독일에 오기로 결정한 것은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석숙자 독일에 가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딱 내렸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금 빨간 지붕의 독일마을과 비슷했죠. 제가 1973년 3월 18일에 독일에 갔는데 푸른 잔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은 잔디라고는 상상도 못 하던 시절이었어요. 잔디밭이 그렇게나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뒤셀도르프에서 조금 떨어진 양로원에서 일을 했는데 정원에 수선화가 피고 잔디가 있어서 정말 동화책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너무 아름답구나. 독일에 오길 참 잘했다.'고요.

그 당시의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진 분단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두가 구원을 거절했지만, 독일은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하나 없는 가난한 나라, 전쟁의 상실과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위해 독일은 자신들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은 독일에서 땀 흘리며 가족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고, 그들의 땀이 모여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숙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해외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너희 같은 가난한 나라를 뭘 믿고 보조해 주겠냐?'라고요. 그리고 이후 선택한 것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한국처럼 분단된 국가였기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했나 봐요. 그리고 독일로 간호사, 광부가 파독을 가면서 국가는 차관을 빌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 1973년에 내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과 한국의 문화 수준은 100년 정도 차이난다고 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텔레비전도 거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모여서 볼 정도로 귀했어요. 그리고 1979년에 칼라 텔레비전이 한국에 처음 나왔을 거예요. 독일 양로원에 한국 간호사가 5명이 갔었어요. 그런데 응접실에 엄청 큰 대형 칼라 텔레비전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김치를 싫어했어요. 특히 마늘! 마늘 냄새를 싫어했거든요. 우리는 또 김치를 안 먹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조금만 넣어도 "너 크노블라우(마늘) 먹었지?" 딱 그랬어요. 처음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독일에 와서 음식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싶어서 부끄러워서 잘 먹지도 못했어요. 다행히도 나는 고기와 빵을 좋아해서 독일에서 독일 음식도 맛있게 잘 먹고 살았지만요(웃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서는 말도 잘 통하니까 "김치는 발효 음식이고 마늘도 건강식품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리고 20년이 지나고는 독일 사람들도 마늘이 건강식품인 것을 알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김치나 불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4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코리아'를 많이 알게 됐고 삼성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래도 나라가 부강하니까 더 좋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시절에 독일에 갔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독일에서의 잊을 수 없는 추억들

독일은 분명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독일로 떠나기로 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낯선 음식들은 그녀가 그곳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했고, 그녀로 하여금 고국과 가족을 더욱 그리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은 너무나도 먼 곳에 있었고, 그 먼 거리는 가족들에 대한 소식조차 뒤늦게 알아챌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석숙자 그리움이 아무래도 컸죠. 나는 동생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가족이 그리운 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덜했지만,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었죠. 우리가 갈 때만 해도 독일행 비행기가 없었어요. 전세기가 와서 소련을 경유해서 알래스카로가서 26시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우편도 한국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답장을 보려면 두 달이 걸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돌아가신 한 달 후에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보고 다 '자판'이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 우리를 일본의 속국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2차 대전 같이 치르고, 같이 남북으로 나뉘고 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분단국가였던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낯선 땅 독일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보고 신기하기만 했고, 독일 사람들 역시 그녀들을 낯설어했습니다. 지금은 한류 열풍 덕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즐기고 있지만 그 당시엔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독일 사람들에게 공유하기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석숙자 초창기에는 독일 문화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 공원에 갔는데 밤나무가 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밤을 많이 따서 한국에도 보내고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질색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밤을 소나 말이 먹는 여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또 된장, 청국장의 냄새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마음 맞는 한국인 가족들끼리 여름휴가를 네덜란드 바닷가로 가서 천막을 치고 삼겹살이랑 된장찌개를 끓여서 실컷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화가 돼서 독일 사람들도 많이 먹어요(웃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독일은 그녀들을 낯설어했을 뿐,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그녀들을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받아들여 줬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정직함과 검소함은 그녀들에게 있어 감탄의 대상이었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허황된 사치를 부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독일인들의 문화는 어느새 그녀들이 배우고 싶고, 꿈꾸게 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아픔을 감싼 천사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환자들을 위한 그녀의 진정성 있는 마음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환자들이 화를 내도 웃으며 간호하는 그녀들을 보며 독일 환자들은 '코리아 엔젤'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온 천사들은 독일 환자들의 아픔을 감싸안고, 그들의 상처를 함께 치유했습니다.

석숙자 환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뽕' 하고 가져다주고 서 있고 그랬어요. 환자들이 가끔 화를 내도 우리는 계속 웃었어요. 가끔은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환자들이 지팡이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20대니까 어르신들(환자) 눈에 우리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우리가 말은 잘 못해도 계속 웃고 서 있으니까 '코리아 엔젤'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한국에서 온 천사'라고 평했었어요.

물론 그녀들이 머나먼 독일까지 향한 이유는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일하는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힘든 일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녀들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 독일은 힘든 일을 할수록 그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할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독일에서 흘린 그녀의 땀이 모여, 지금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석숙자 독일 사람들은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면 독일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요. 제가 1973년 3월 18일에 독일에 갔는데, 그때는 유로가 아니라 마르크였어요. 처음에 병원 시스템도 모르고 서툴렀는데도 제 월급이 730마르크였어요. 한국 돈으로 15~16만 원 정도, 그 당시 한국 간호원들이 15,000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우리가 10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힘든 일을 할수록 보수가 세요. 막노동하는 사람은 힘드니까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처음 월급을 받고 너무 놀랐고 '이야 정말 정직한 나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 3년이 지난 후 한국에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왔어요.

그들의 정직함과 검소함은 그녀들에게 있어 감탄의 대상이었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허황된 사치를 부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독일인들의 문화는 어느새 그녀들이 배우고 싶고, 꿈꾸게 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머나먼- 땅에서도,
사랑은 꽃핀다

그렇게 낯설었던 독일에 하나둘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독일은 미지의 장소가 아닌, 지금 그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년만 일하기로 결심하고 떠난 독일행이었고, 하루라도 빨리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독일에서의 생활은 노력하는 자들이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도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파독 광부, 간호사들은 독일에 더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결혼 적령기였던 그들에게는, 결혼이 독일에서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석숙자 처음 독일에 갈 때 3년 계약으로 갔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돌아오기가 아쉬운 거예요. 단, 조건이 한국 간호사랑 결혼을 하면 독일에 머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부 아저씨들이 한국 간호사들이랑 결혼하려고 난리였죠(웃음). 그리고 저희도 모두 결혼 적령기가 됐으니까요. 한참 뜨거운 청춘일 때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이유로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이 결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녀 역시 독일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습니다. 함께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독일에 그대로 정착하게 되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못지않게 독일에서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기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간다는 선택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함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독일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석숙자 독일에서는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아요. 우리 아저씨(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를 가서 살아도 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아저씨(남편)랑 '그럼 65세가 되면 한국 가서 살자'라고 말했었어요. 그 당시 독일 연금은 다른 나라로 가면 70~75% 정도 줬어요. 지금은 100%가 다 나와요. 한국의 문화로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죠. 이후 남해에 김두관 군수님이 독일에 오셔서 독일마을 설명회를 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남해라는 곳이 있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살라고요. 그때 저는 바로 '아! 저거다!' 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1999년에 남해에 와 보니 완전 사람 살 곳이 아닌거예요. 돌산, 뱀산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응모 했던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죠. 처음엔 100집이 응모를 했는데 이후엔 50집 정도로 줄었어요. 저는 또 너무 정직해서 독일 마을 제1호 집이 되어버린거죠(웃음).

석숙자 독일마을에 처음 왔을 때는 여기가 완전 다 논이고, 산이고 그랬어요. 도로도 없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아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1호 집이다 보니 처음 이사 올 때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사를 컨테이너로 해서 왔는데 독일마을이 너무 경사지고 진흙이라 올리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에서 다섯 집을 처음에 지었는데 독일 재료를 다 가져와서 사용했어요.

ALC라고 부르는 큰 블록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애를 먹었어요. 저희 집 이후에는 점차 개선을 해서 지붕의 경사도 넓히고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는 집을 지을 때 정원을 중요시 생각했어요. 독일도 이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펜션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우리 부부가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놓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지었습니다.

석숙자 나를 따르라 Große Liebe



독일마을에서의 나날들

그렇게 독일마을에서 살기 시작한 그녀는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을 더욱 가꾸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더욱 다양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마을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남해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석숙자 2003년부터 독일마을에 살았어요. 3년 정도 살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문화 혜택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진주 경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2006년 독일어 캠프를 독일마을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때는 집이 20집 정도 되었는데, 집집마다 학생들을 2~4명씩 배정했어요. 독일어 캠프는 한 달간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집은 아침 시간에는 독일어로만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인지 1년 독어독문학과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빨리 언어가 늘었다고 호응과 실적이 좋았습니다. 대구대, 전북대, 부산외대, 강원도 등 여러 지역에서 저희 독일마을을 찾아주셨어요. 이 캠프가 남해 관광지의 밑거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곤 2009년 독일어 캠프는 마쳤어요.

그녀가 시작한 독일어 캠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독일마을에도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맥주 축제를 독일마을에서도 진행해 보기로 말이죠. 축제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 축제로 인해 즐거워할 사람들의 모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많은 것을 안겨준 독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흘린 땀은 또 한 번의 결실을 맺어냈죠.

석숙자 2009년에 독일어 캠프를 끝날 즘 독일마을은 많이 안정화가 됐었어요. 독일어 캠프도 안 하다 보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정현대 군수님께 찾아가서 독일에 뮌헨에서 열리는 '옥토버페스트'라는 맥주 축제가 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하루 축제를 하는 비용을 알아보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독일마을 20집, 집집마다 기부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총 900만 원을 모으고, 군에서 2,4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게 2010년 10월 6일 맥주 축제를 처음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대박이 난 거예요. 관광버스가 집 앞 차고까지 들어오고 2~3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7~8천 명은 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생맥주도 안 했었고 우리도 기반이 아예 없었을 때라서 이마트, 홈플러스,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독일 캔맥주를 다 모아서 사서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팔았어요(웃음). 그런데 이것도 금세 다 동이 나버려서 독일마을 주민들과 부산 코스트코에 가서 소시지랑, 독일 맥주랑 부랴부랴 사서 다시 오고 그랬어요(웃음). 그마저도 금세 팔려버렸고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장사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했고 2~3천 명 정도 오시지 않을까? 하고 넉넉잡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요.


제4회 독일마을맥주축제
Oktoberfest
2013

그런데 객석에서 "괜찮아. 괜찮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독일어 캠프 때 온 학생들이 직장인이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전북대에서 강원도에서 새벽 버스로 50명씩 다 왔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한국의 하이트맥주 큰 것을 객석에 다 돌렸어요(웃음). 이후에 김두관 군수님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도에서 3천만 원, 군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2011년에는 총 6천만 원을 가지고 이틀간 맥주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맥주 축제로 독일마을과 남해가 더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보물섬 남해가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남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해 맥주 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되었어요. 이로써 독일마을이 그리고 남해가 관광지로 많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그만 할머니를 군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한국관광공사 등에 상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내심 뿌듯하지요.











그렇게 그녀는 독일마을의 1호 집 석숙자가 아닌, 독일마을의 개척자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보러 독일마을까지 방문했고,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건네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며 독일마을을 개척하고, 발전시키고, 이끌었습니다.

석숙자 독일마을에 베를린성이라고 거기가 홀이 넓어요. 거기에 버스 두 대가 오면 80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러 왔었어요. 지금처럼 독일에 간 이야기, 독일마을에서 했던 일들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요. 2016년부터 코로나 전까지는 토크 콘서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또 제가 영농조합 마을기업 대표도 했었어요. 처음에 우수마을기업으로도 선정이 되었었고요. 파독 전시관에서 근무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나이도 들고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숙자 독재'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요(웃음). 그래서 내 스스로 내려왔어요. 운영회장을 오래했지만 적당한 보수를 받은 건 없어요.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지도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회장님, 대표님' 해주니까 뿌듯하죠.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뿌듯합니다. 내 인생, 내 삶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곳도 아니고, 20대 청춘을 다 바쳐 일한 독일 그리고 독일마을은 그녀에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한번 와보기를, 이곳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를 추천하고 싶다고 합니다.

석숙자 독일마을은 자연이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은 봄비가 오고 있는데 봄비가 오고 나면 집집마다 정원의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또 공기가 맑아서인지 긍정적으로 살게 되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독일마을 오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여기가 진짜 독일 파독을 다녀온 사람들이 사는 독일마을이라는 것을 더 알리고 싶어요. 기왕이면 펜션도 파독을 다녀온 분들의 펜션에서 묵으면 더 좋을텐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대화할 수 있고, 이 마을의 역사를 더 알 수 있으니까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녀이기에, 지금의 발전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에 비교하자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고민이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쁜 일상에 지쳐가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 안타깝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건네주고 싶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겨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너희들도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석숙자 한국이 지금처럼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게 아닙니다. 나라의 부강 정도에 따라 외국에 갔을 때 알게 모르게 대우가 달라집니다. 인천공항을 저는 자주 가니까 딱 보여요. 서양 사람들은 가방을 엄청 크게 가지고 와도 그냥 통과를 해줘요. 그런데 흑인들은 통과를 안 해 줘요. 사실 사기꾼들은 유럽인들이 더 많은데…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그만큼 차별하는 그런 관념부터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도나 동남아시아, 흑인들을 보면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도 외국에서 노동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독일에서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정당하게 일을 하면 그에 맞는 정당한 보수를 줬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은 배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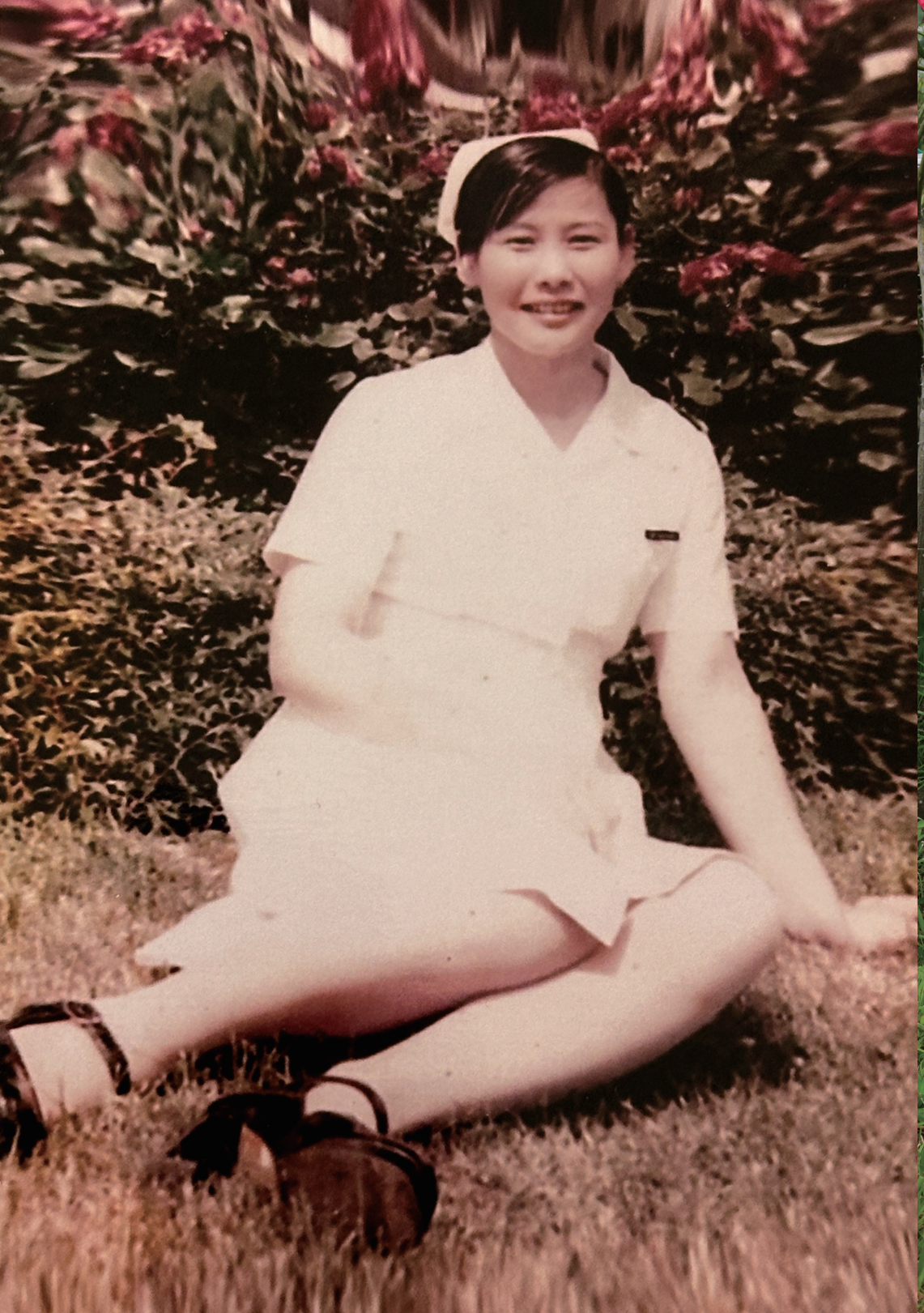





2011 제2회 슬로건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2010 제1회 슬로건
보물섬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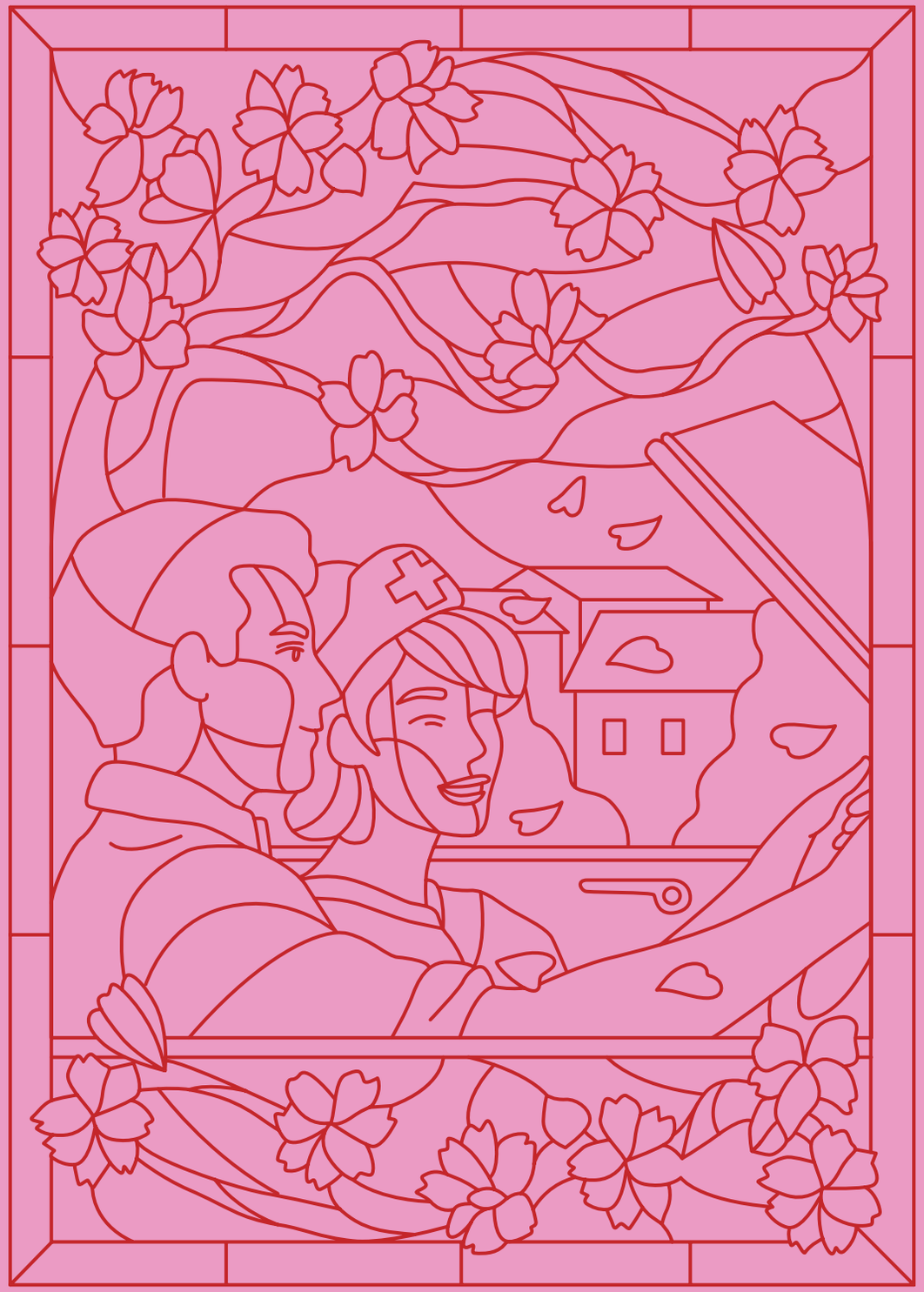
석숙자에게 독일마을이란?

지금의 독일마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그녀에게, 독일마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석숙자 석숙자에게 독일마을은 제2의 고향이자 종착역입니다. 독일마을에 추모 공원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20대에 독일에 갔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갈 고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있을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 멀리 독일까지 갔던 파독근로자들이 여기서 종착해서 평안히 바다를 바라보며 잠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고생했던 그 모든 분들이요.

석숙자
나를 따르라
Große Liebe





초속
5cm

류길자 간호사의
이야기



파독,
그 결심과 준비

류길자 간호사는 처음부터 독일에서 일할 계획을 세우고 간호를 공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조산원에서 트레이닝을 받던 중, 그녀는 독일로 파견되는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류길자 한국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조산원 트레이닝을 받는 도중에 독일 파독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서 독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그 당시 한국이 못살기도 했고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독일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독일로 떠나는 결정을 내릴 때, 그다지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경쟁률이 높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녀는 이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배움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무엇보다 독일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가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류길자 제가 독일에 갈 당시에는 외국에 가려고 하는 간호사가 많지 않아서 서류만 제출하면 갈 수 있었어요.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쟁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정을 했을때 부모님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제 스스로는 힘든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걱정보단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대감이 컸고, 독일에서 번 돈으로 동생들 공부시키는 데 보태려고 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해서 얼떨떨하고 소통도 안 돼서 초반에 고생은 했지만, 저희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독일어를 빠르게 배우고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텐 탁!
독일?!

독일로 떠나던 날,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모였습니다. 당시엔 워낙 경황이 없어 세부적인 기억은 희미하지만, 부모님이 슬퍼하셨을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히 기억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님과 계약 기간인 3년 후에는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그렇게 슬프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몇십 년 동안 독일에서 그것도 독일인 남편을 만나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겠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인생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을지 모릅니다.

류길자 부모님과 큰오빠, 여러 친구들과 이별하러 김포공항으로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땐 너무 정신없고 또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부모님은 슬퍼하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스위스 항공 비행기를 타는데 저의 첫 비행이라서 많이 얼떨떨 했죠.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일이고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계약 기간인 3년을 채우고 나면 꼭 돌아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독일에 사는 것은 상상도 못 했어요(웃음).





그렇게 도착한 쾰른 본 공항, 파독행 비행기를 탄 30명 정도의 한국인이 한복을 차려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각 병원에서 간호원장과 병원장들이 마중을 나와 주었고 그 순간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순간은 '내가 진짜 독일에 온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낯선 땅에 첫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류길자 우리 비행기에 한 30명 정도 탔었는데, 그때 쾰른 본 공항에 도착했어요. 모두 다 한복을 갈아입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거기에 각 병원에서 독일 간호원장과 병원장이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내가 진짜 독일에 온 게 맞나?' 그 당시엔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당시 독일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냐고 묻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일본 옆에 있는 나라죠"라고 설명을 하며,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 대해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낯선 독일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류길자 당시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을 모르더라고요. 일본에서 왔냐고 '자판' 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일본 옆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한국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독일에서의 초창기 생활, 언어의 큰 장벽은 그녀도 피해 갈 수 없는 관문이었습니다. 독일어가 서툴던 초창기엔 손짓발짓을 하며 소통했고, 항상 주머니에 작은 사전을 넣고 다니며 필요한 단어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독일어 공부에 전념했고, 독일 사람들도 그녀의 언어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류길자 아무래도 언어 소통이 가장 힘들었죠. 처음엔 손짓발짓하면서 일을 하고, 사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의사소통을 많이 했지요. 나중에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독일어 수업을 하면서 빨리 언어를 배웠습니다. 독일에서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초속 5cm

Große Liebe

초속 5cm

Große Liebe



나의 사랑,
나의 독일

독일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즘, 그녀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일하던 재활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젊은 독일 대학생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깊은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물리적 거리는 100km나 되는 먼 거리였지만 서로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류길자 에피소드는 많이 있죠. 저희 남편도 병원 환자로 처음 만났게 되었어요. 제가 있던 곳이 재활병원이었는데, 남편이 당시 스포츠를 하던 대학생이었어요.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하러 왔는데 저를 너무 좋아해 주더라고요. 독일 사람인데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러지?'라고 처음엔 생각했고 많이 놀랐었어요. 그 이후로 점차 알아가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은 퀼른에 살았고 저희 병원은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들의 러브스토리는 영화 같은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눈이 아주 많이 오는 파리에서 프러포즈를 받던 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류길자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같이 파리로 여행 하자고 했는데 구경을 많이 시켰었어요. 그때 눈이 많이 내려서 아주 로맨틱하고 멋있는 날 이었어요. 상상도 못 했는데 호텔 룸에서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한국말로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본대학에 한국과를 택해서 1회 졸업생도 이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한국말을 잘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많이 잊어버렸거든요(웃음).





그녀는 독일 남편 덕분에 독일의 아름다운 곳을 많이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풍경과 문화들을 접하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류길자 독일에 아름다운 곳이 참 많아요. 쾰른은 활발한 도시이며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거든요. 남편이 유적지나 관광지를 좋아해서 많이 보여줬는데, 독일이 통일된 후 베를린 (Berlin)과 괴테 살던 바이마르 (Weimar)에 구경도 했고, 북해도 다녔고 바바리아에 있는 알프스도 많이 가봤어요.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곳들을 보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23살 독일로 처음 떠나던 날,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소설의 한 페이지처럼 그녀는 먼 이국땅에서 운명처럼 독일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25살이라는 나이에 결혼하여 독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류길자 3년 계약이 끝나고 캐나다에 갈 생각도 했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1969년에 남편의 프러포즈를 받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23살에 독일에 가서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오빠에게 허락을 받고, 쾰른에 살게 되었고 쾰른대학병원에서 취직하게 되었어요.





류길자 초속 5cm *Große Liebe*














PATISSERIE




초속 5cm

독일마을로의 이주

한국으로의 이주에는 김두관 전 군수가 오작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김두관 전 군수는 독일마을을 소개하며, 독일에 거주하는 교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홍보했습니다. 그녀도 이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되었고, 독일마을의 땅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그녀는 가족들의 따듯한 응원과 지지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류길자 김두관, 전 군수님 때문이죠. 그분이 독일마을을 소개했고 독일에 있는 교포들에게 홍보했지요. 그래서 그때 저도 신청을 해서 땅을 보고 오게 됐죠. 고향을 떠나서 독일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젠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외에 한국으로 온다니까 가족들이 다 도와주고 허락해 줬고 남편, 딸, 아들도 남해에 자주 와요.

독일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황량하고 날것 그대로인 자연의 풍경이었습니다.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뱀들과 독일보다 훨씬 더 큰 지네들을 보며 그녀는 무섭고 막막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황량하고 척박했던 땅들이 점점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류길자 독일마을에 처음 왔을 때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엔 뱀도 지나다니고 독일보다 훨씬 더 큰 지네도 돌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때 전선이 하늘로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게 싫어, 독일처럼 전선이 땅으로 지나가는 지중화를 부탁했었는데 그 이야기 때문인지 지금은 지중화가 되었어요. 안전하고 깔끔해졌죠.





그녀의 집은 다른 집보다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내부에는 독일 전통 가구와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외부에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연식이 오래된 벤츠 자동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류길자 독일식 모양의 설계는 우리 남편의 친구가 해줬어요. 집을 지을때 독일에서 모든 자재를 공수했는데 벽과 지붕은 황토로 지었고 창문도 튼튼해서 집안 단열도 잘되고 방수도 온도조절도 잘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엔 독일 전통 가구와 데코레이션이 많은데요. 한 100년 정도 된 나무로 만든 가구도 있는데 튼튼해서 오래 써요. 우리 남편의 이모가 쓰시던 것도 물려받았어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타던 벤츠 차도 독일에서 가지고 왔는데 맥주 축제 때는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집도 오픈 하우스로 열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녀는 독일마을에서의 생활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산,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인 남해 독일마을이 웰빙과 힐링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는 그녀, 그녀는 앞으로 독일마을이 관광객과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류길자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독일마을 자체는 공기도 좋고 산도 바다도 있어서 웰빙과 힐링 잘 되는 장소 같아요. 다만 가로수 양쪽에 벚나무를 심어서 꽃이 많이 펴 우리도 관광객도 좋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젠 우리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람도 있고 잘 왔다고 생각돼요.

그녀는 지금도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를 모두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두 고향을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류길자 사실 일 년에 한 번씩 독일을 가고 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요즘 그리울 여가가 없어요. 그렇지만 확 생각이 날 때도 있죠. 독일이 안정되고 좋은 게 있어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적응한다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면 거기 가기 싫고 거기 가면 여기 오기 싫고 그렇더라고요(웃음). 그래서 지금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아요. 한국도 독일도 둘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그녀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검소함의 미덕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 독일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모두 검소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그 시절의 미덕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이죠.

류길자 한국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조금 검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독일 사람도 한국 사람도 매우 검소했었는데요. 독일마을의 전시관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었고, 고생하면서 경제가 성장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면성실!

초속 5cm로 떨어지는 벚꽃잎은 류길자 간호사가 독일에서 보낸 긴 세월을 상징하며, 수십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순간처럼 느껴지는 찰나의 청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류길자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참 아름답고 좋았어요. 재밌었고요. 남편과 함께해서 행복했죠. 남편이 유럽의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보여줬고, 식구들과 프랑스로 자주 여행을 가서 너무 즐거웠어요.

남편은 참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아니 다시 태어난다 해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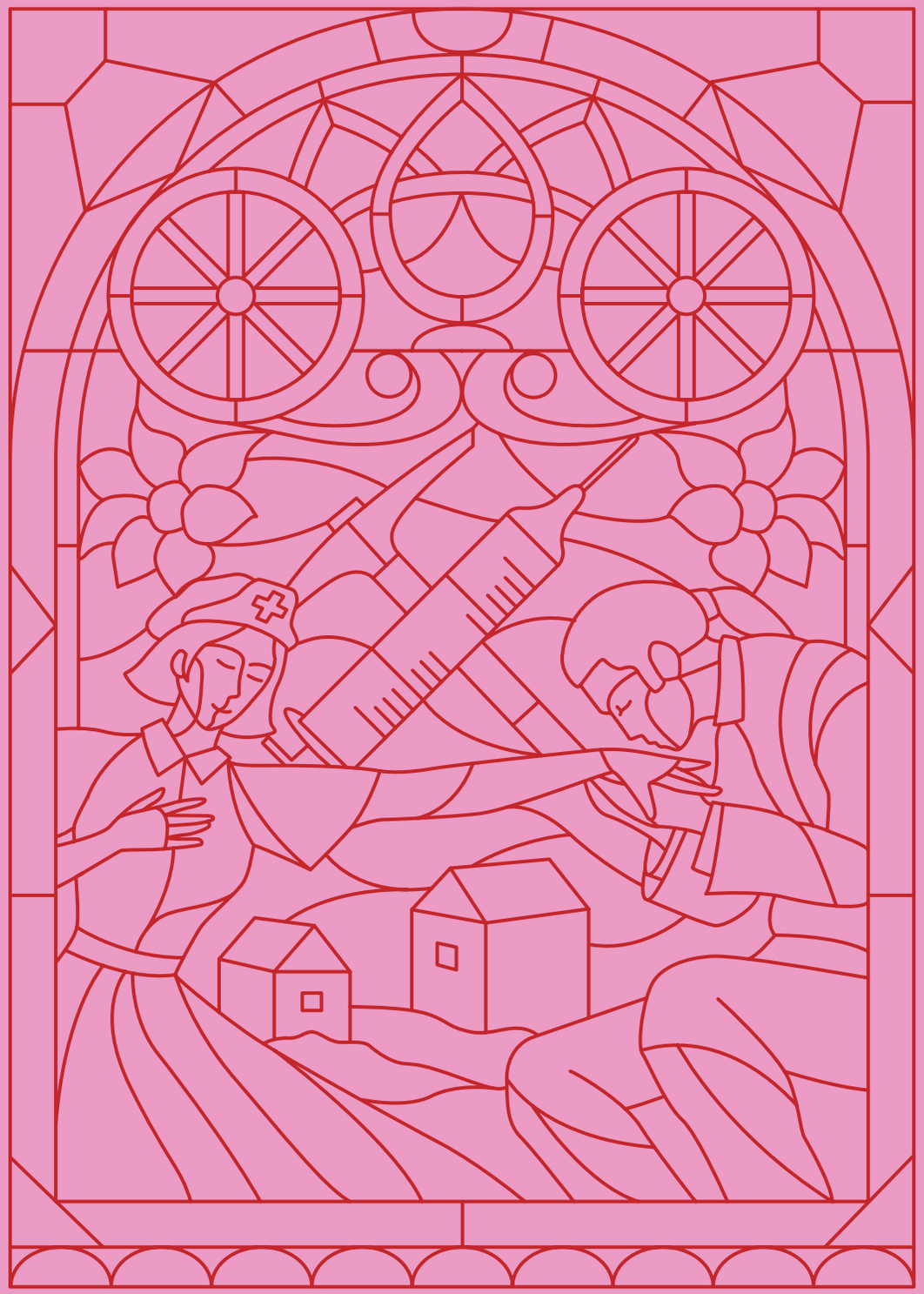


류길자에게 독일마을이란?

벚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찬란했던 그녀의 삶, 그녀에게 독일마을이란 어떤 의미일까?



류길자 류길자에게 독일마을은 아름다운 종착역입니다. 꿈을 꾸었던 집을 짓고 나서 아침마다 바다를 보면서 영혼이 안정됩니다. 독일에 다녀왔던 파독근로자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착역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원이라는 이름의 약속

서원숙 간호사와 신병윤 광부의 이야기

기회의 땅, 독일로

1960년대 한국은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마땅히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신병윤 파독을 갈 때는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일할 곳이 없어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도 일자리를 얻기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이 집에서 노는 수밖에 없었고, 얻을 수 있는 일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는 것뿐이었어요.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파독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간호 학교를 졸업한 뒤 독일 수녀님들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근무하던 서원숙 간호사에게 독일은 새로운 도전의 장소였고 피 끓는 열정은 가득하지만, 기회가 없었던 신병윤 광부에게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서원숙 저는 한국에서 간호 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 취업했었어요. 당시에는 독일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병원이었고, 지어진 지 삼 년 밖에 안 된 병원이었어요.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배 간호사분들 중 거의 70%는 이미 독일에 가서 3년 동안 일하고 귀국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졸업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국을 구경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오기로 결정했어요.

신병윤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피 끓는 열정은 있었지만, 무언가를 하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광부 모집이 있는 거예요. 신문 광고를 보니까 3년간 일하고 오면 2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당시의 한국 사회를 벗어나 독일로 떠나고자 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소위 인텔리라 불리는 대졸자들까지 경쟁에 참여하다 보니 독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병윤 당시에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났고, 대졸자도 거의 30%였어요. 그리고 고졸자는 거의 60-70%였죠. 광부 지원 공고였지만, 대졸자들까지도 많이 지원했어요. 다들 빠르게 많은 돈을 벌고 싶었을 거니까요.

물론 모두가 독일로 떠나고 싶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독일로 떠나게 된다면 최소 3년간은 그곳에서 생활해야 하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독일이 어떤 국가인지,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예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독일로 떠난다는 것은 기회임과 동시에 리스크였습니다. 이건 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3년만 견딘다면 자신의 삶에 더욱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고,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병윤 원래는 파독 광부 계약이 3년이거든요. 미혼자든 기혼자든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3년 계약이었어요. 3년만 하면 한 200만 원 벌고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독일에서 생활해 보니깐 생각이 바뀌었어요. 독일에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정부에서 한국 간호사와 결혼을 하면 3년보다 더 있게 해줬어요. 한국 간호사가 미혼자가 꽤 많아서 경쟁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인연이 있다면 간호사를 만나서 독일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간호사였던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별천지 같은 세상, 독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오게 된 독일은 마치 별천지처럼 기존에 살아오던 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병원에는 카페테리아가 갖춰져 있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일이나 주스를 마시고 있었고, 호수에는 오리나 토끼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마치 천국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독일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서원숙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가 배정받은 병원은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카톨릭 계열 병원이었어요. 수녀님 세 분이 봉고차를 타고 우리 일곱 명을 데리러 와서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일곱 명이 거의 비슷한 20대 초반 나이였어요. 병원 식당은 카페테리아라고 했는데, 정원이 연결돼 있어서 정말 넓고 아름다웠어요. 호수도 있고 오리가 놀고 토끼가 뛰어다니는데 정말 천국 같았어요. 환자들은 휠체어를 타고 정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간병인이 밀어 주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먹기 힘든 과일이나 주스를 독일에서 많이 먹고 마시면서 당시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시에 한국에서는 오렌지나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카페테리아는 간호사나 직원들이 줄을 서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고르고 식판에 담아서 먹을 수 있었어요. 원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직도 오리가 호수에서 놀고 있는 광경이 잊혀지지 않아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신병윤 청소부 아주머니가 자가용을 타고 와서 일하고, 끝나면 자가용을 타고 퇴근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정말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관절을 다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을 서민층에서 생각 못 할 정도였는데 독일에서는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은 한국이랑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시지를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활이 그때는 정말 천국 같았어요.

독일, 그 잊을 수 없던 시간들

독일에서 삶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고 그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 장벽까지 있었던 그들에게 독일은 천국처럼 아름다운 곳임과 동시에, 도저히 섞여 들어갈 수 없는 미지의 장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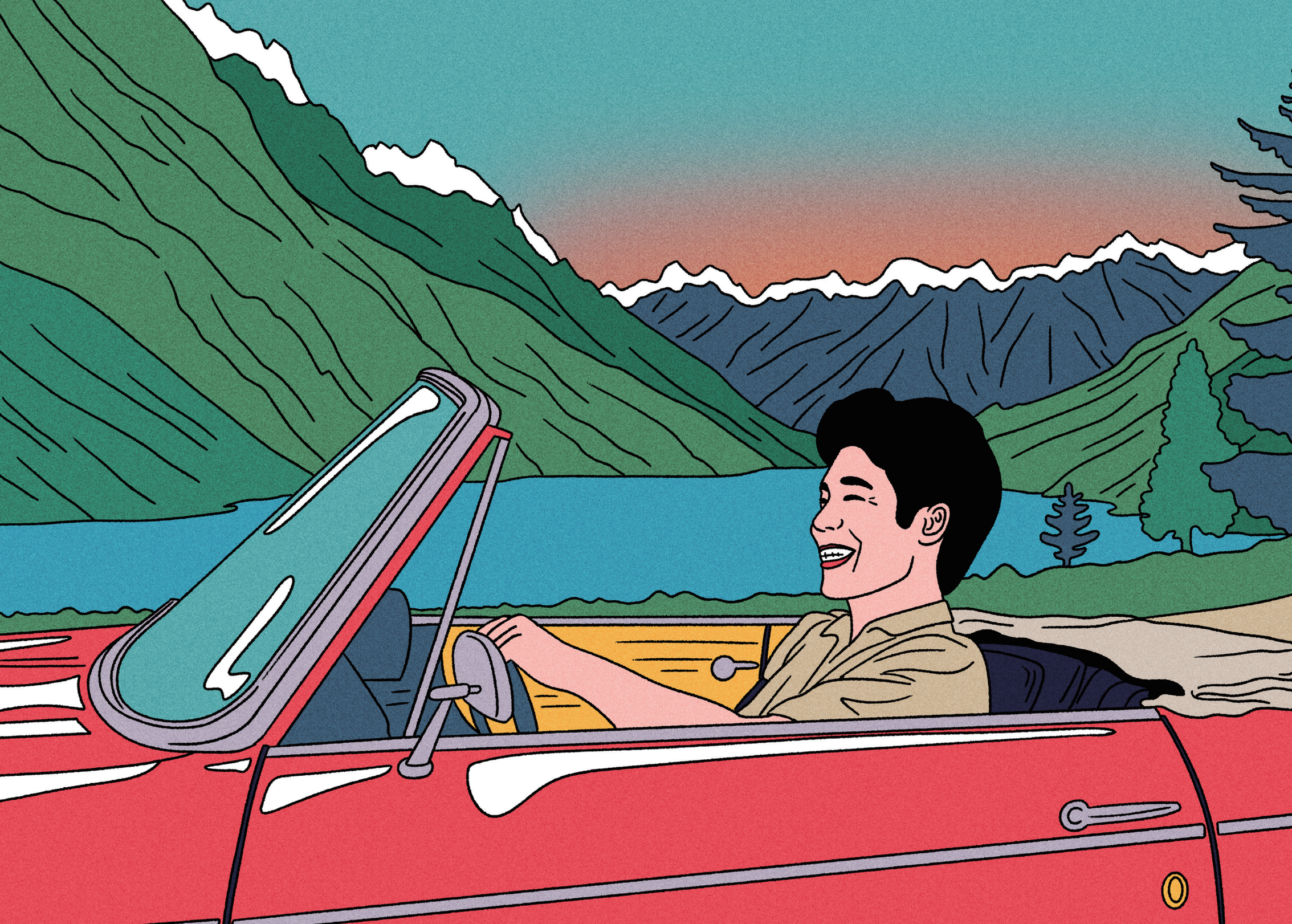
그리고 이는 독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을 접하는 독일인들 역시 한국 사람에 대해서 낯설어했고,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독일은 서로에 대한 어색함을 간직한 채 다소 불편한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병윤 독일에 가면 '희나'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이라는 말이고 우리를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코리아가 어딨는 줄도 몰라요. '야판'은 일본 사람을 말하는데, 자기들 동맹국이어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광산에 많았거든요. 몇 년간 일본 경기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일본 사람이 다 철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게 된 거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희나, 야판은 알아도 코레아는 사실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코레아는 몰라도 공항에 가면 거기 삼성 마크 하나 있는데 삼성은 알았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한국을 알지만, 그때는 거의 몰랐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고국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독일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먼 고국 땅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시간이 이어졌지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먼 타지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는 동포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독일까지 온 이들이었기에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외로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누구보다 서로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독일에서의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인생의 반려자가 된 그녀를 만날 수 있었고, 서로의 존재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신병윤 광부보다 간호사 수가 훨씬 많았어요. 광부가 한 8천 명이고 간호사가 1만 2천 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합이 약 2만 명 정도가 15년 동안 일을 했어요. 전부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 광부의 거의 50%는 기혼자, 50%는 미혼자이고, 간호사들은 70-80%가 미혼자이고 기혼자가 20% 되어서 성비가 광부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인기가 많았어요(웃음). 우리가 병원에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국 간호사들을 찾아가는 거죠. 누가 소개를 해주면 그 간호사를 보러 가는거예요.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광부들은 한 지역에만 있었어요. 독일에도 특정 지역만 광산 지역이에요. 하지만 병원은 독일 전역에 다 있어서 베를린부터 뮌헨까지 전부 간호사들이 갔어요. 우리는 뮌헨이나 베를린에는 간호사를 보러 가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차를 렌트해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거리만 다녔어요.

우리 지역에 광부가 한 200명이 있는 데서 간호사가 일곱 사람이 왔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참 운이 좋았죠. 처음 우리 지역 병원에 일곱 명의 한국 간호사가 왔다고 하길래 관심이 갔어요. '돈도 많이 드는데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가까운 데서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웃음). 그때 나도 이제 갔는지 2년 반 쯤 되어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을 가든지 결정해야 할 시기였는데 마침 일요일이라 갈 데도 없고, 사람도 만나야 해서 생전 안 가던, 형들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아는 형이 집사람을 소개 시켜줬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일곱명의 간호사들은 독일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당장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온 지 2년 반 정도 돼서 곧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급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이제 1년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엔 잘 만나서 결혼까지 했지만요.



그렇게 가족들을 떠올리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를 위로해 주며 독일에서의 힘든 시절들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업무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앓아눕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누워 있을 때면 가족들의 따뜻한 품이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열심히 하는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에 견뎌내고, 독일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서원숙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가끔은 한 달 이상 위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원래 성격이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걸 싫어하는데, 외국에서 간호사로서 일하니 신경 쓸 게 많았어요. 대우는 좋았다고 하지만 차별이 왜 없겠어요? 제가 느끼는 작은 것들이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되어서 가끔은 위장병 때문에 힘들었어요. 외국 생활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외국 간호사라는 이유로 일을 할 때 미스가 있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꼭 끄집어내서 혼을 냈어요. 그리고 가톨릭계의 수녀님들은 전부 깐깐하시거든요.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웃음). 외국인이라고 큰 차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실수 같은 것들을 보듬어 주면서 하지는 않았어요. 원리와 원칙을 중요시 생각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그렇게 독일에서의 삶이 점차 익숙해질 때쯤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젊은 나이에 결혼한 뒤 성실히 돈을 모아왔고, 그 덕에 독일 사회에 조금씩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원숙 저희 부부는 독일에서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맞벌이로 돈을 모았어요. 첫째가 7개월 때 친정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친정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독일로 부르고, 집안 살림하고 애들을 돌봐주셨어요. 맞벌이로 돈을 모으면서 한국에 투자도 많이 해서, 귀국했을 때 임대료만 받아도 애들의 교육과 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귀국했어요. 애들이 4~5학년 때쯤, 그래도 성장기는 고국인 한국에서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귀국을 했어요. 초등학교를 이미 독일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애들에게 낯설었어요. 지금도 딸은 왜 그 당시에 귀국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곤해요. 그래서 저도 그 결정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애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했던 선택이었지만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귀국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수원에서의 생활이었지만 서원숙 간호사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고국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기에 그리움과 낯섦이 공존하게 된 곳이 고국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보냈던 젊은 시절은 한국에서 지내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었던 경험들이었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도중 그녀는 같은 시절에 대해서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해 독일마을이죠.

서원숙 수원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움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독일 마을에 놀러 왔는데 홀딱 반해버렸어요. 여기 사람들은 독일에서 와서 이야기가 잘 통해요. 사람들과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수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오히려 수원에서 오래된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문화 차이와 서로 다른 20대 추억들 때문에 대화가 힘들었어요.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를 한잔하면 독일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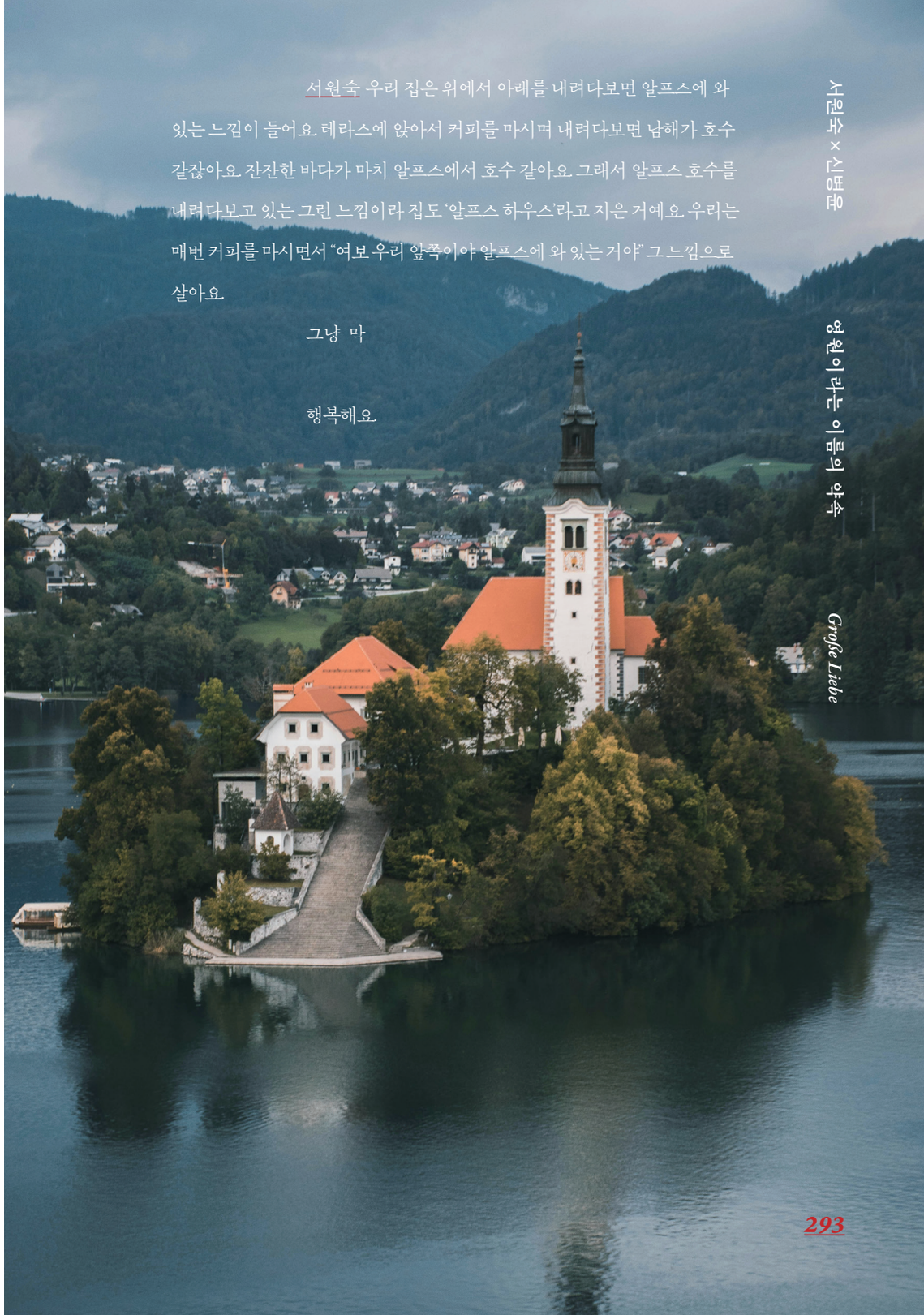
신병윤 남해라는 곳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 고향도 진해라서 멀지 않아서 좋아요. 한국에 다시 왔을 때 수원에는 논밭도 없고, 어릴 때 듣던 개구리 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큰 나무들이 있고, 자연 속에서 있는 것 같아 행복해요.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 개구리 소리를 듣고 주변 자연이 우리를 감싸주는 기분이에요. 고향 진해보다도 더 고향 같은 셈이죠.

부부는 남해 독일마을이 마음에 들었고 이곳에서 살아가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죠. 마치 알프스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에서 그들은 행복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서원숙 우리 집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알프스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내려다보면 남해가 호수 같잖아요. 잔잔한 바다가 마치 알프스에서 호수 같아요. 그래서 알프스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집도 '알프스 하우스'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는 매번 커피를 마시면서 "여보 우리 앞쪽이야 알프스에 와 있는 거야" 그 느낌으로 살아요.

그냥 막

행복해요.





전하고 싶은 한마디

그렇게 그들은 독일마을의 주민이 되었고, 그곳을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과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부부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전해주며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들과 만나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서원숙 손님들은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말이 적어서 이상한 거 같아요. 딱 인사만 하고, 그냥 가고, 할 거만하고 방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저는 어디서 왔냐고 다 물어보고, 내가 독일 얘기도 다 해줘요. 예를 들면 독일은 어떻고, 애들 교육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인지 단골 손님이 많고, 얼마 전에는 3살에 왔던 꼬마 손님이 7살이 되어서 다시 왔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몇 년 간, 독일에 가서 살다 오면 참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많이 얘기해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손님들과 얘기하는 게 즐거워요. 돈 벌기보다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펜션을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부부가 운영하는 펜션을 찾아오는 이들은 다양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오는 분들도 있고, 젊은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펜션에 방문하는 날이면 그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고, 그렇게 천천히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가라고 말이죠.

물론 그것이 힘든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 누구보다 바쁜 청춘을 보내왔던 그들이기에, 다른 이들이라도 여유 있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희망해봅니다.

신병윤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유럽 여행을 길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긴 여행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휴가 시간이 짧으니까 긴 여행을 하기에는 제한이 되죠.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이탈리아까지 오래 이동하는 여행도 못 하고, 한 번씩 가는 긴 여행도 1주일 이상 가기 힘들어요. 독일 사람들은 휴가 기간이 길어서 많이 쉬고 느끼고, 그러지만, 한국 사람들은 놀러 가면 잠을 쪼개서 빨리빨리 보러다니기 바빠요. 그러니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독일에서의 생활들이 문득 떠오르고는 합니다. 그곳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이 지금 자신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곳에서 그들은 인생의 반려가 될 서로를 만났고, 아이들을 낳고, 그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추억들 덕분에 현재 독일마을에 뿌리를 내려 살아가게 되었죠.

서원숙 인생에 있어 좋은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젊을 때 거기 가서 경험한 것들이 거름이 되어서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신병윤 처음에는 돈 보고 갔지만, 막상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삶과 문화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 세상을 많이 느끼고, 일하는 것, 검소한 것,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렇다면 서원숙, 신병윤 부부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독일로 떠났을까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독일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행복했던 시절일까요? 아니면 고생으로 얼룩져 있던 과거의 기억이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부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원숙 다시 돌아가도 독일로 갈 거예요.

신병윤 못 살 때라면 무조건 가야죠. 그런데 다른 데(탄광)에 떨어졌으면 다른 사람 만났을까요?(웃음)

서원숙과 신병윤에게 독일마을이란?

부부에게 있어 독일마을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원숙 독일마을은 마음의 고향이예요. 넓은 세상에서 실컷 느끼고, 많이 배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고향만큼 마음이 편한 데가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느끼고 배운 것들을 얘기하면서 살고 싶어요. 독일마을처럼, 고향처럼, 평온하게, 평화롭게요.

신병윤 독일마을은 엄마의 품이다. 실컷 놀다, 일하다 보면 집이, 엄마의 품이 참 그립잖아요. 엄마한테 안기면 놀고 싶은 생각,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너무 포근하니까. 독일마을이 그래요.

epilogue.
에필로그.

그리고
찬란했던 청춘,
반짝이던 보석을
찾아서

찬란했던 청춘, 반짝이던 보석에 대하여

"위대한 사랑"을 찾는 여정은
마치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이
광산에서, 병원에서 힘겹게 캐낸 보석은
그들의 청춘처럼 고된 시간이었지만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 여정은 그들의 삶 속에서
반짝였던 보석 같은 순간들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독일마을을 거닐며, 파독근로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마주하고 듣는 시간이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빛났던 청춘을
몸소 느끼는 여정인 셈입니다.

안내된 코스를 따라가며 독일마을 곳곳에서
생생하게 재현된 파독근로자들의 동상을 만나고,
파독의 집 한켠에 설치된 스테인드글라스를 찾습니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스테인드글라스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을 읽은 후 QR코드를 스캔하면
실제 파독근로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침내 광장으로 돌아오면,
마을 곳곳에서 만났던 파독근로자들이 분수대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독일마을에서,
그들은 서로의 고난과 성취를 공유하며
깊은 이해와 격려를 나누고,
서로를 애틋하게 어루만집니다.

이윽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환대하고 또 위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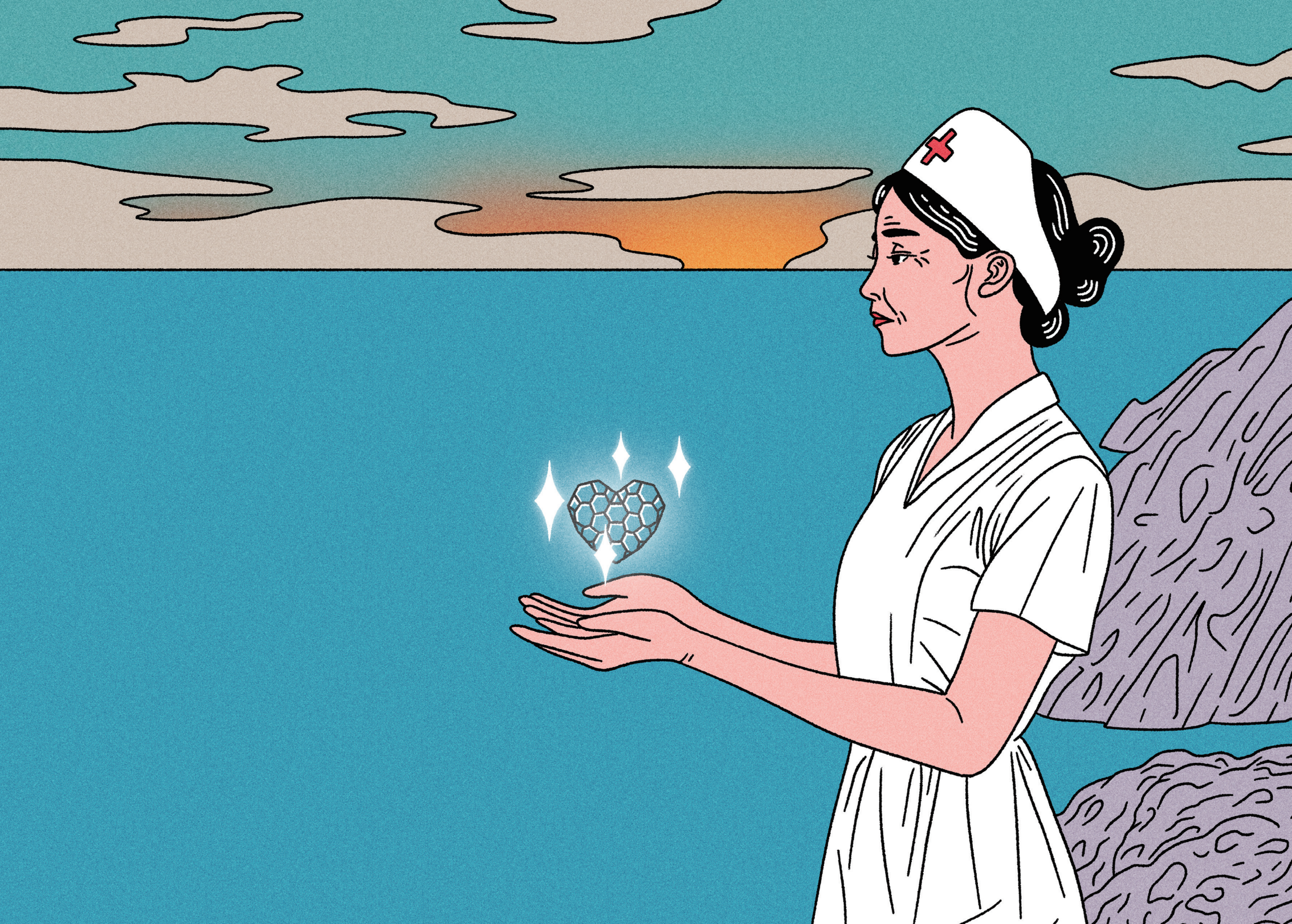
이 여정은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가슴 속에 반짝이는
벅찬 감정을 선사합니다.

남해바다와 파독근로자들을 보니
마치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에서
바다에 보석을 던지던 로즈가 떠오릅니다.

오늘도 남해바다는 잔잔합니다.
알프스 호수처럼요.
그리고 반짝이고,
끝없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부시던 청춘을 회고합니다.

그들의 청춘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한국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 여정을 함께한 우리 모두는
그들의 빛나는 청춘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란했던 청춘,
반짝이던 보석을 찾아서

1960년대의 한국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폐허나 다름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농경사회였으며,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당장 먹고살 걱정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경제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과 기술이 부족해 산업화는 요원해 보였고, 미국의 무상원조마저 줄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을 발전 가능성이 없는 빈민국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독일은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고, 한국은 넘쳐나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노동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약 8천 명의 한국인 광부와 1만 3천 명의 간호사를 파견 받았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큰 기회였고, 특히 한국에게는 가난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낯선 환경과 언어 장벽, 고된 노동은 파견 근로자들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이를 극복했습니다. 파독 광부들은 깊고 어두운 광산에서 청춘을 바치며 일했고, 파독 간호사들은 언어 장벽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조국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며, 그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은 독일 사회에서 그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인정받았고, 한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한국이 산업화의 길을 걷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한국과 독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점차 잊어가고 있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오늘날의 우리가 있음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청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삶과 도전에 대해 배울 수 있고,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에 대한 깊은 존경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후대에 전해져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파독 광부와 간호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이 책을 더욱 풍부하고 감동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디 이 책을 쓰며 우리가 발견한 반짝이던 보석을, 그리고 벅찬 감동과 아픈 눈물들을 느낄 수 있기를. 진심어린 공감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고, 그 위대한 청춘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기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마을 스토리북

Organized By

남해군관광문화재단

Directed/Desined By

레인메이커협동조합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남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독일마을 오브제·소품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GYEONGNAM 남해군 남해관광문화재단

Published in 2024 by 남해군관광문화재단 and 남해독일마을
All image courtesy of 남해군관광문화재단 and 남해독일마을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남해군관광문화재단과 남해독일마을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5240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83번길 100
https://www.namhaetour.org/

GroBe Liebe

German Village Story Book

GroBe Liebe and the Journey to Find
the Shining Youth, the Sparkling Jewels.

Große Liebe and the Journey to Find the Shining Youth, the Sparkling Jewels.

